



# 雲門

2022년  
복호  
통권 제108호  
운무승가대학



불기 2553년 봄호 통권 제108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물은 뜻 없이 흐르고 편집부
교수논단	4 恥其言過其行 명성 스님
차례법문	6 전통사찰문화의 현대적 가치 Ⅲ 은광 스님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2 수행의 디딤돌, 보지 보전 스님
학인논단	14 행복한 대중생활 일진/학감스님
想	16 강원생활과 청규정신의 고찰 진우 스님
특별기고	20 만발한 봄, 흐뭇한 운문 서주 스님
노스님 텁방	22 시를 통한 관조의 세계 박영호
선사이야기	26 삶에서 삶으로 원공 스님
이 한 권의 책	28 我慢心을 버리고 下心하며 살게나 진형 스님
끝없는 여정	30 생명의 소리 아준 스님
깨달음으로 가는 길	32 계율, 그리운 몸짓 선의 스님
담소	37 계향(戒香)
우리 절 이야기	38 장뜰이라는 이름의 콩나물국밥집 아주머니 박남준
방부소감	40 세상을 향해 열린 門 편집부
풍경소리	42 대중 속에서 덕혜 스님
수행의 두레박 I	43 길 위에서 만난 부처님 범수 스님
II	44 彙依 장주 스님
운문논평	46 믿음은 의심 없는 마음 혜진 스님
운문소식	48 길에서 묻다 편집부
동불	50
	51 Virudhaka 범서 스님



산 아래 흐르는 물은  
 그 저 흐르고  
 흘러가기에 모이는 구름은  
 무심할 뿐이다  
 인생이 만약  
 꾼과 구름 같아진다면  
 무쇠나무에 끌어피어  
 온누리 감히 이리  
 차운 정수정 명선사  
 편집부

12  
흐름 뜻 없이

## 恥其言過其行

“자신의 말이 자신의 행동보다 과한 것을 부끄러워하라.”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지나친 기대도 지나친 걱정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학인들이 방부를 들였고 새봄을 시작하는 활달한 기운이 도량에 가득합니다. 해마다 새삼 느끼는 바지만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매화가 피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무심히 변화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시작은, 한편으로 기대와 설레임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때가 되면 변화하듯이 초심의 어설픈과 미숙함도 때가 되면 무르익게 마련입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초심의 설레임은 어느덧 수행자의 단단한 의지로 변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시간의 흐름이 저절로 낯선 것들을 익게 하고 익었던 것들은 낯설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새로운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겠지만, 스스로 새롭게 환골탈피 하는 일은 시간과 무관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절집에 오래 있었어도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초심의 기대와 희망은 곧 빛바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기대도 지나친 걱정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새로운 각오는 너무 많은 기대와 결심 때문에 허황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시시각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나의 행동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내가 나 자신이나 남에게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말보다 행동에 힘쓰고, 남에게 요구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수행자가 될 때 하나하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말없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천둥이 치고 가을이 오면 곡식이 무르익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듯이, 수행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도량 가득한 매화 향기를 맡으며 그 꽃들이 겨우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없이 준비했을지 깊이 성찰해보기 바랍니다. ☺

## 전통사찰문화의 현대적 가치 Ⅲ

- 운문사를 중심으로 -

은광 / 운문승가대학 강사

### 1. 머리말

### 2.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사찰

- 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
- ② 비전을 제시하는 정신문화의 공간

### 3. 전통사찰문화와 디지털문화의 만남

### 4. 맷음말

### 3. 전통사찰문화와 디지털문화의 만남

Peter Drucker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리자가 바로 문화산업”이라고 말했다. Drucker의 말처럼 문화산업<sup>1)</sup>은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1년 8월 ‘한국문

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되었다. 같은 해 정부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6T’를 발표했는데 IT(정보), BT(바이오), NT(나노), ST(우주), ET(환경), CT(문화) 등으로 문화산업기술(Culture Technology)은 국가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문화콘텐츠<sup>3)</sup>산업이 이룬 경제적 성과의 위력

1) 심상민은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문화산업’이라 하고, 놀이와 감상의 성격을 강화한 것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 하고, 그 가운데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고’ ‘매체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문화콘텐츠라 했다. 심상민,『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2002, p.5, 참조.

2) <http://www.kocca.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참조.

3) 콘텐츠(contents)는 본래 사전적 의미로 “문서, 연설 등의 내용이나 목차, 요지”를 뜻하는 영어이다. 하지만 두산백과 사전을 인용한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의미한다. 우리말로 표기된 ‘콘텐츠’는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문화콘텐츠는 처음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즉 디지털콘텐츠 중에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오락, 위로, 여흥) 요소가 강한 콘텐츠(게임, 애니메이션 등)를 묶어서 부른 용어였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제작,

온 이미 비교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 한 편으로 올린 수익은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자동차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총액을 능가한다는 것이다.<sup>4)</sup> 그리고 월트디즈니가 98년 동양적 소재를 발굴하여 할리우드에서 작품을 제작하여 개봉한 애니메이션 ‘뮬란’은 3억 \$(약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뮬란’의 원작 ‘목란사’는 20줄의 짧은 내용의 중국민담을 시나리오로 재가공하여 작품화한 것이다.<sup>5)</sup> 이처럼 디지털기술<sup>6)</sup>의 발달은 영상, 출판,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의 제작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의해 제작된 영화 한 편이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와 흥행을 이루었던 ‘해리포터’ 시리즈, ‘뮬란’, ‘반지의 제왕’ 등은 첨단과학의 기술과 접목되지 않았더라면 만들어질수 없었던 영화들이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보

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작품들이 디지털 콘텐츠화되기 이전 원천소스를 어디에서 착안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모두 설화나 신화에서 착안하여 창조적으로 시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탄생한 것들이다.

신화의 생산적 전환의 또 다른 예는 미야자키 하야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바람계곡 나우시카’,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연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신화의 생산적 변용이 그것이다.<sup>7)</sup>

일본의 전통문화는 다양한 이미지의 보고입니다. 즉 이야기, 전승, 행사, 신도, 주술 등 일본의 민속 전통이나 미술로 참으로 풍부하고 복잡한 원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 아이들은 히아이코로, 둘러싸인 채 책이나 일상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전하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시유·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유통, 향유되는 문화예술의 내용물(방송, 영화, 음반, 전시회, 캐릭터 등)뿐만 아니라 공연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말로 범위가 넓어졌다. 김희경,『문화콘텐츠에서 상징적 이미지의 역할』, 인문학연구 제34권 제3호, pp.180~181, 참조. 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를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Cultural Commodity)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창작 원천인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문화의 바탕에서 창의력 및 상상력으로 재창출된 2차적 생산물이다. 나아가 인터넷과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어 소비자에게 패러디하게 유통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이재수,『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 불교학보 제47집, p.318.

4) 김희경,『문화콘텐츠에서 상징적 이미지의 역할』, 인문학연구 제34권 제3호, p.182.

5) 허윤무,『불교문화콘텐츠개발과 산업화방안』, 여행학연구 제26호, p.119, 참조.

6)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혁신적인 점은 첫째, 저장방식의 디지털화로 보존이 가능, 둘째, 저장된 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용이성으로 저장된 모든 자료는 비트로 분절되므로 부분 수정이 가능, 셋째, 복제방식과 전달방식의 신속성을 둘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재생산 기술(사진, 복사 등)과 결합되어 대량복제가 가능하며, 통신기술(인터넷, 방송, 팩스 등)이 발달함에 따라 공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실시간 전파되는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희경,『문화콘텐츠에서 상징적 이미지의 역할』, 인문학연구 제34권 제3호, pp.180~182, 참조.

7) 네트워크 컴퓨터의 발전,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급화, 영상압축 기술과 전송기술, 저장기술 등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문화 콘텐츠의 DB화를 유도하고, 개인 간 자료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 디지털 제작시스템에 의한 제작공정의 효율성이 향상을 유도하여, 1인에 의한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타 콘텐츠산업과의 공동제작 및 협조제작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장르별로 구분되어 이용되던 콘텐츠가 각 장르에서 단일한 콘텐츠로 멀티 콘텐츠화되는 경향을 유도함으로써, 콘텐츠의 이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해짐에 따른 유통방식의 혁신을 초래하였다. 김종갑,『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동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4집 제1호, 2002, p.5.

멋지게 모자이크화으로 써 영화의 세계에 신선한  
설득력을 부여해 야 할 것이다. ('신고 치아로오' 행방불  
명 - 홍보 품플랫 증) 8)

이 홍보 품플랫의 내용을 통해서 미야자키 하  
야오의 철학과 그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추구하  
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뿌리를  
잃어가는 일본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전통을 현대  
적 이미지로 멋지게 모자이크하여 다가가고자 하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  
극하고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해 주는 그의 애니  
메이션 소재도 『山海經』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재서는 일본은 백제로부터 전래된 『산해  
경』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내용을 확장하여 독자  
적인 캐릭터 왕국을 건설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포켓몬스터’를 비롯하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  
명’과 ‘음양사’ 등에 등장하는 수많은 몬스터는  
일시적으로 고안된 캐릭터가 아니라, 에마키(繪  
券)·판화·설화집 등에 실린 전통 이미지에 근  
거한 것이라는 것이다.<sup>9)</sup>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설화나 신화, 민담, 그리고  
전통 이미지에 근거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으  
로 문화강국의 이미지를 전고히 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일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  
중적인 공감대 형성과 현대감각, 흥미와 참신한  
독창성을 갖춘 원천소스 개발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희경은 하나의 원천  
콘텐츠만 잘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 기술과 온라

인이라는 네트워크에 힘입어 하나의 水原이 여러  
갈래의 물줄기로 퍼져 나가듯, ‘원소스’는 여러  
영역으로 확산 파급되어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상품들로 전환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은 원천소스를 사찰벽화와 경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사찰의 벽화는 반드시 특정한  
이야기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려져 있다. 경  
전의 내용이나 가르침을 그림이라는 형식을 빌려  
시각화시켜 놓은 벽화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그려져 있다.

운문사의 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심우도,  
팔상성도, 육바라밀, 자타카(부처님의 전생담),  
조사스님들의 이야기(혜능, 혜가, 구정선사), 사  
성제, 사천왕의 헌발(獻鉢) 등등이 의미 있게 그  
려져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재미를 주는  
동시에 독창적이며 시대감각에 맞는 작품으로 재  
구성될 수 있다.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은 부처  
님 전생담의 내용 중 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 놓  
았고, 지계바라밀은 열반경, 인육바라밀은 금강  
경 등 경전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그림이 구성  
되어 있다. 또 모든 경전이 원천소스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화엄경의 입  
법계품을 내용으로 하여 선재동자 구법이야기가  
일본에서는 ‘은하철도 999’라는 재미있는 만화  
로 제작되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모은중  
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이 경전은 부모님의  
은혜와 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해진 경전이

다. 그러나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태어나  
기 전 어머니 태반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묘사되  
어 있다. 그래서 인체 내부로 떠나는 여행으로 내  
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  
존엄성의 문제,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교육 문제  
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내용의 불교 원천소스  
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콘텐츠화되기 위해  
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 엄청난 투자가 토대 되어야  
한다. 원천소스를 현재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창조적으로 재가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sup>11)</sup>  
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  
로 기획, 창작, 마케팅이 전개되며, 그것의 적실  
성 여부가 문화콘텐츠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sup>12)</sup>

현대는 ‘영상문명(civilisation de l’image)<sup>13)</sup>  
의 시대다. 이제 첨단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디지  
털 기술을 이용하여, 벽화 속의 이야기나 화엄경  
과 같이 스케일이 방대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내  
용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이야기로 영상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진 문  
화유산도 복원되어 영상 시스템으로 관람이 가능  
한 시대이다.

이승현은 오늘날 사회는 물리공간이 주도적  
이었던 산업사회에서, 전자공간에서 현장감 있는  
실감 3D를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거쳐, 실제 물리  
공간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유비쿼터스<sup>14)</sup> 실감  
IT<sup>15)</sup>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는 불교문화의 보존은 불교문화재 3D DB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사를 도심 속에서 체  
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인 4D체험관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D영상인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  
하여 쉽게 볼 수 없는 불상 등을 관람할 수 있도  
록 영상박물관 전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이승현의 생각에 불교계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중한 불교전통문화는 계속 유지 보존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첨단과학기  
술과 만나야 한다. 앞으로는 분명히 사찰 부설 척  
첨단 문화센터가 전립되어 어린이나 젊은이들과

11)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최혜실은 그것을 구성하는 ‘story’, ‘tell’, ‘ing’의 요소를 구분하고,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을 특성으로 파악  
하였다. 즉,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라는 상호작용성(interaction)이 강화되고, 이것이 다양한 또 다른 이야기하기 과정들과의 생산적  
연계를 지향하는 네트워크형과 다양한 말하기의 방식이 총체적 즉각성을 지향하며 멀티미디어로 동시에 구현되는 복합성(통합성) 등 디지  
털 매체환경을 적극 반영한 개념이다. 최혜실, 「스토리텔링의 개념」,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마스터풀랜, 한국문화콘텐츠진흥  
원, 2007, p.16. 박기수, 『삼국유사』 설화의 스토리텔링 전환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4집, p.142, 채인용.

12) 박기수, 『삼국유사』 설화의 스토리텔링 전환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4집, pp.140~141, 참조.

13) Gilbert Durand, L’imaginaire, Essai sur les sciences et la philosophie de l’image, Hatier, 1994, 서문 참조.

14) 유비쿼터스는 컴퓨터에 들어 있던 것들이 이 세상 속의 물리공간으로 다 흘러져 세상이 거대한 컴퓨터로 변하는 것, 폰 페러다임의 변화를  
의미 한다. 즉 사회는 공간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직접 교감하는 직접성, 공간 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속하는 집단성, 자신의 의  
지와 상관없이 공간의 통제를 받는 강제성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장석호,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서비스」,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p.17, 참조.

15) 실감 IT서비스 기술이란 고화질 3D 영상 및 음향에 의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현장감과 사실감을 체험하거나, 마치  
한 장소에서 회의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는 실감형 AV 통신 서비스 기술을 의미한다. 이승현, 「불교전통문화 콘텐츠의 3D 및 4D의 제작  
활용방안」, 위의 자료집, p.18.

16) 이승현, 「불교전통문화 콘텐츠의 3D 및 4D의 제작 활용방안」, 위의 자료집, p.18, 참조.

8) 박기수, 「신화의 문화콘텐츠화 전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pp.14~15.

9) 박규태, 「일본의 문화콘텐츠와 종교」, 종교연구, p.27.

10) 김희경, 「문화콘텐츠에서 상징적 이미지의 역할」, 인문학연구 제34권 제3호, p.184. ‘원소스’가 여러 영역으로 확산 파급되는 현상을 일컬어  
‘OSMU One Source Multi Use’라 한다. 즉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다양한 양식의 문화상품(출판, 음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동  
시에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현재는 각 사찰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포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구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하기도 하며, 다채로운 법문을 듣기도 한다. 사이버 법당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불을 하고, 죽비소리에 맞추어 함께 좌선도 하는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찰 홈페이지는 사찰소개, 자료실, 행사안내, 나눔의 마당, 갤러리, 신도교육 등의 메뉴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흥미유발 프로그램이 부족한 형편이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의 사찰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고, 어린이 방이나 청소년 방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포교의 일환이 될 것이다.

불교는 어느 시대 어떤 장소를 상관하지 않고, 인류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귀중한 보배를 어떤 모양의 그릇에 어떻게 담아 놓는가 하는 것이다. 수많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불교에서 사이버공간 활용과 문화콘텐츠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과감한 투자에 힘을 모아야 한다.

#### 4. 맷음말

우리의 삶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는 결코 위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서글프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전통사찰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그곳에서는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정신문화가 존재한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전통사찰문화가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섬세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민족이었는지를 사찰건축이나 문화재, 불교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제 불교전통문화는 최첨단과 과학을 만나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기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목란사’라는 20줄의 짧은 중국민담을 시나리오로 재가공하여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월트디즈니의 ‘뮬란’ 같은 애니메이션의 소재가 불교에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물론이고, 불교 소재의 애니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작품화되었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불교포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인류의 정

신문화와 어린이들의 정서에 미칠 효과를 생각한다면, 불교는 온 정열을 투입하여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

#### 참고 문헌

- 김갑기,『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한국사상과 문화 제35집, 2006.
- 김희경,『문화콘텐츠에서 상징적 이미지의 역할』, 인문학연구 제34권, 2007.
- 김종갑,『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동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4집 제1호, 2002.
- 박기수,『신화의 문화콘텐츠화 전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6.
- 박기수,『『삼국유사』 설화의 스토리텔링 전환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4집, 2007.
- 박규태,『일본의 문화콘텐츠와 종교』, 종교연구, 2006.
- 박상환,『韓國文化Contents的研究動向及對問題點的哲學小考』, 한국철학논집 제22집, 2007.
- 백기영,『美的思索』, 제2장, 서울대학교 대학교양총서 10, 1986.
- 서혜경,『불교의 음식문화』, 비교민속학 24집, 2003.
- 심상민,『미디어는 콘텐츠다』, 김영사, 2002.
- 이승현,『불교전통문화 콘텐츠의 3D 및 4D의 제작 활용방안』,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6.
- 이재수,『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 불교학보 제47집.
- 임석재,『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 장석호,『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서비스』, 「불교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의 중요성과 개발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06.
- 정재서,『일본의 문화전통과 학술 그리고 문화산업』, 인문콘텐츠 제3집, 인문콘텐츠학회, 2005.
- 지명,『천하일발』, 이른아침, 2007.
- 최혜실,『스토리텔링의 개념』,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마스터플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
- 허균,『사찰의 100美 100選』, 불교신문사, 2007.

• 허윤무,『불교문화콘텐츠개발과 산업화방안』, 여행학 연구 제26호.

• 『이미지로 읽은 세계불교사 1』, 참여불교, 2008. 5.

• 『청도운문사』, 청도문화원, 1992.

• 『호거산 운문사』, 운문승가대학 출판부, 2002.

• 『석문의법』, 법륜사, 2000.

• 지관,『가산불교대사림』 권8,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6.

<http://www.kocca.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blog.naver.com/saynon/>.

<http://www.naver.com/>.

Edward Burnt Tylor,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Gordon Press, 1976.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Fifth Annual Ministerial Meeting,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ape Town, South Africa, October 14 16,

2002. (<http://206.191.7.19/meetings/2002/instrument%5Fe.shtml>)

17)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란 애니메이션, 입체영화, 게임,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매장, 영어공부,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등의 문화 활동이 전통사찰 부설 문화센터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상영되는 모든 것은 불교를 소재로 마련 된 것이고, 스님들의 보살핌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찰 문화센터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수행프로그램이 병행되므로, 아이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최첨단 문화센터를 연구하는 희망해 보는 것이다.



## 수행의 디딤돌, 보시

보전 / 사교과

봄이 가득한 계절의 사이에서 대중스님들께서는 어떤 수행 중이십니까?

저는 요사이 수행의 방편으로 자주 작심(作心)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자꾸 훈련하면, 한여름 떡약볕에서 매일 고추 따는 울력을 하면서도 쓰러지지 않던, 서로의 단단해진 체력을 원망했던 것처럼 강인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듯 수행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년, 사집 가을철 구사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스님께서 해 주신 대웅전 벽화에 그려진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은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두 아이마저 다 주고도 흔들림 없이 여여하게 정진하던 수행자의 모습은 두고두고 저에게 육바라밀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오늘 제 법문의 주제는 ‘보시’이며,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임금님은 당시 유명한 황룡사의 지혜(智海)법사를 대궐로 초청해 화엄경 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법회는 장장 50회나 계속된 아주 긴 법회였는데, 그

때 묘정이라는 사미 하나가 지혜스님을 시봉하느라 대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묘정사미는 공양이 끝나면 밀우를 금광정(金光井)이라고 불리는 아주 맑은 우물에 가서 셋었습니다. 그런데 묘정사미가 대궐에 들어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자라 한 마리가 우물 위에 떠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묘정은 일부러 밥을 조금씩 남겨서 자라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라는 사미가 오는 소리가 나면 우물 위에 떠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50일 가량이 지나 법회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미는 자라에게 장난삼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라야, 조금 있으면 난 대궐을 떠난단다. 그런데 말야, 내가 그동안 널 위해 밥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줄게 없니?”

다음날, 자라가 사미에게 예쁜 구슬을 주었습니다. 사미는 누가 볼세라 그것을 허리춤 깊숙이 간직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하게도 묘정은 대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내전으로 들어가 왕의 곁에서 편안한 생활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신을 따라 당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당나라 황제와 모든 대신들도 묘정을 보고는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관상쟁이가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황제폐하, 이 사미의

관상을 보건대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을 받을 만한 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걸 보니 반드시 무슨 물건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이 말에 황제는 사람을 시켜 사미의 온 몸을 뒤져보게 하였더니 과연 묘정의 허리춤 속에서 구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짖어버린 황제의 여의주였습니다. 황제는 그 구슬을 빼앗았습니다. 구슬을 빼앗긴 묘정은 그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잘 것 없는 초라한 사미가 되어 낯선 이국땅에서 방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묘정사미의 보시는 처음에는 순수한 것이었지만, 장난삼아 던진 말이 상(相)이 있는 보시가 되었고, 그 말로 인해 ‘하나의 윤회 속에서 또 다른 윤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하는 것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아말로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 수행입니다. 모두들 ‘생활 속의 수행’을 찾지만 막상 알면서도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라는 수행이 그렇습니다.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 등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틀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깨달음도 궁극적으로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어떤 이의 수행을 점검하려면, 그의 보시 정신을 살피면 된다. 도력이 높다는 명성만 있고 보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시의 수행은 다만 복 짓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상을 타파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근본이 되는 수행인 것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만물이 둘이 아니라면 내가 네게 무엇을 보시했다라는 상을 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륜청정이

라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시했다는 생각이 모두 비워진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이며, 이런 보시의 수행이 ‘보시바라밀’인 것입니다.

주고 나면 아깝지만 가만히 명상을 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 맑음에 마음이 비워질 것입니다. 그 맑은 행위로 우리는 더욱 청정해 질 것이고, 우리의 수행력은 나날이 높아질 것입니다. 본래 내 것이 없었기에 주어도 그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강원에서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문을 준비하면서 부끄럽게도 저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적게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특별하고 꽤 팬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인색한 마음으로 옹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큰 보시를 향한 원을 세우되, 먼 훗날로만 미루지 않을 것이며, 지금 작은 보시 공덕부터 쌓기 시작할 것을 발원합니다.

성열스님이 쓴 ‘고파마 봇다’에서 벌췌한 부처님의 ‘과거현재인과경’의 글을 끝으로 저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보시(布施)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인욕(忍辱)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며, 선행(善行)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리라.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실천하면 빨리 열반에 이르게 되리니, 가난하여 남들처럼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지어다.”

정진여일하십시오. ☺

## 행복한 대중생활

일진 / 학감스님



이른 봄, 신입생 방부동 대중공사와 신중기도가 끝나면서 첫 철의 화엄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화엄경 간경은 그저 단순한 한 학과목의 강의 시작이 아니라 생애 처음 전개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봄에 맨 처음 -정확히 그 해 3월 27일- 삭발하던 순간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목련꽃 하얗게 편 도량을 「치문』책을 들고 치문반 수업을 하려가던 첫 날, 그 떨리던 순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올해의 봄입니다.

삼천리강산에 봄이 오면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노랫말로 고무줄놀이 하던 까마득한 어린 시절, 저의 세계는 온통 논과 밭을 갈고 씨 뿌리는 농경시대였던거죠. 지금도 운문의 봄은 여전히 비슷하긴 합니다만 올해의 봄이 저에게는 참 새롭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어른 스님의 말씀이 더욱 가치있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는 진리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화엄의 넓고 깊은 바다에 이제 막 노젓기 시작하는 맷사공의 심정이 되어, 넓고 넓은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겸손한 농부의 마음이 되어 간절히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노를 짓고 밭을 갈고 기도를 하고 강의

를 하고 …, 무엇을 하는 行爲는 곧 생활이고 그것은 곧 삶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갑니다. 그 모든 하는 일들은 내용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보다 나은 삶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의 정의나 조건은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마음이 편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돈과 명예를 말할 수 있겠으나, 비록 출가 수행자라 해서 돈과 명예에 전혀 무관하다고 만은 단정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건강, 학벌, 사랑, 사람과의 인연, 종교, 문화생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큰 원력과 성실한 노력입니다. 밭을 길었으면 반드시 씨를 뿐만 후에야 김매는 노력이 필요하듯, 행복한 수행자의 조건은 대지를 품을 수 있는 큰 원력과 끊임없는 정진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도 습관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한 젊은 수행자로서 완전 공동체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화합 대중입니다. 화엄경에서 청량스님은 위쟁(違靜)의 허물이 다한 것을 '승보'라 하였습니다. 몸과 뜻과 말이 서로 화합하여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이 수순하는 것이 대중 생활의 행복이라면 함께 정해진 청규를 소중히 생각하고 철저히 지켜서 어긋남이 없을 때 대중은 기쁘고 편안할 것입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당연히 행복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대중 속에서 늘 수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은자(隱者)가 되어 온전히 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수행자. 그는 순간순간 외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대중 속에서 기쁘고 편안하며 행복한 삶이 되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복해지는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2-10주 동안 25%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이나 성별, 소득, 학벌의 정도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미소 짓는 것을 습관들이는 것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늘 대중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과 집중, 정진력을 습관들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숙지하면서 늘 제자리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연도 저마다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대중 속에 살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조화와 화합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며 대중 속의 행복입니다.

이 봄 시방삼세 모든 생명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기를 ….

## 강원생활과 청규정신의 고찰

진우 / 대교과

### 목 차

1. 서론
2. 초기 승가공동체의 생활과 계율정신
3. 선원청규의 근본정신
4. 강원생활과 청규
  - 1) 강원생활에서 청규는 왜 필요한가?
  - 2) 강원 교과목을 통해 본 청규정신
  - 3) 운문사 강원 규범을 통해 본 청규정신
5. 결론

### 1. 서론

요사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편리 위주의 생활 환경, 물질적 풍요 속에서 승가의 역할과 수행풍토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자각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승단 내에서도 서서히 일고 있다. 이에 필자는 승가의 수행 풍토 쇄신은 승려를 양성하는 강원[기본교육기관] 학인들의 출가목적과 수행생활, 출가수행자로서의 근본 정신이 얼마나 확립되어 있는지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기 승가공동체를 시작으로 하여 현대의 대중생활 규범의 근원인 禪苑清規의 정신

을 환기시킴으로써, 오늘날 승가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바, 수행의 근본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

### 2. 초기 승가공동체의 생활과 계율정신

"승가는 바로 당신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공동체의 후원과 격려와 통찰이 필요합니다."<sup>1)</sup>

본 글에서는 율장을 기초로 하여 초기 승가공동체의 의식주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특징을 통해 계율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식주 : 무소유정신

의식주의 특징은 분소의, 결식, 수하좌, 유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루 한끼만을 결식하고 벼려진 천을 기워 입음으로써 탐욕의 정을 쉬게 되고, 유행생활에 필수적인 여섯 가지 물품만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러한 초기불교 승가공동체의 경제 원칙은 곧 철저한 무소유 정신에 있다.

#### 2) 공동체 의식 : 화합과 평등의 정신

불교에서의 공동체 윤리는 바로 계율이다. 계는 수행의 필수요소요, 율은 불교교단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유타리이다. 『사분율 행사초』에 "승가라 하는 것은 화합으로서 뜻을 삼는다."<sup>2)</sup>고 하였듯이 승가는 율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승가의 화합에 대해 율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의한다.

〔정신적인 면, 法食 : 같은 교법을 신봉하는 것  
물질적인 면, 味食 : 물질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이상에서 승가의 공동생활을 유지·존속시킬 수 있는 제1 근본정신이 바로 화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합의 정신과 더불어 중요한 특징은 바로 평등사상이다. "그렇다면 아난이여, 비구상가는 나에게 무엇을 기

대하느뇨 법은 나에게 위하여 내외의 구별 없이 설하여졌다. 아난이여, 여래의 법에는 다른 師들이 하는 것처럼 握拳(秘傳 : 師拳)는 존재하지 않는다."<sup>3)</sup> 붓다는 모든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평등하게 가르침을 전했다.

#### 3) 지계정신 : 포살과 자자로 실현하는 청정성

계율을 수지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것이다. 율이 단순히 규범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율 조목에 위배됨이 없이 생활해야 하지만 만약 위배했을 때는 바로 침회를 통해 청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청정성을 회복하는 의식이 바로 포살과 自恣로, 초기불교 승가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

### 3. 선원청규의 근본정신

선원청규는 선원에서 선수행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준수해야 할 선문의 율장이며 선원생활의 지침이다. 이러한 청규의 출현은 선종을 교단으로 독립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승되어 선원을 비롯한 대중생활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청규의 근본정신에 대해 살펴보자.

#### (1) 출탁동시(畔啄同時)

선원청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이 바로 상당법문인데, 朝參夕聚가 바로 그것이다. 선종의 핵심은 바로 佛祖心印을 사자상승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불조심인의 전수자 격인 주지의 상당법문은 바로 문하의 제자들이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하는 좌표가 되는 것이며, 다시 이를 통해 제자는 자신의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을 되물어서 매일매일 수행을 새롭게 점검하는 것이 필수였다.

#### (2) 지계정신

흔히 선수행은 지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원청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침선하고 도를 묻는 선수행자의 필수요건은 바로 지계에 있

3) T.1, p.15a(「유행경」, 「장아함경」).

4) 본 장과 관련해서 혜원, 「현대 한국 선원청규의 모습과 나아갈 방향」, 『승가교육』5 (조계종교육원, 2004.2)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緇門警訓』의 「永明智覺禪師垂誠」에서도 배운 바 있다. 지계정신은 선문납자간 윤맥을 잇는 윤사건 포교일선에 있는 포교승이건 관계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수행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계율을 지키고 위의를 엄정히 하는 것이 바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이라고 하겠다.

#### (3) 뚜렷한 목적 의식

출가 수행자에게는 의식주를 편안히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續佛慧命', '廣度衆生' 이 바로 선문납자의 생명이다. 깨달음이란 바로 진리에의 계합, 불조심인의 발현, 의심 요체의 해소, 三界輪轉으로부터의 해탈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써 침선 수행의 궁극을 삼았다.

#### (4) 선농일치(禪農一致)

선원청규로 대표되는 선종의 수행 가풍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바로 普請法이다. 보청이란 대중을 두루 청하여 勤勞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오늘날엔 '대중율력'이라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보청법하면 떠오르는 명구가 바로 '一日不作一日不食'인데 이는 곧 백장스님 일생의 수행면모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보청법의 근본정신 가운데 첫째는 평등사상이다. 緇門規式에서는 "보청의 법을 행함은 상하의 힘을 고르게 함이다."라 하여 보청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선원청규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졌다.

다음으로는 자급자족의 생활과 일용선의 실천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간화선의 대종장이었던 대혜선사가 중시랑에게 답한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 강원생활과 청규 ④

#### 1) 강원생활에서 청규는 왜 필요한가?

강원에서의 교육은 구족계 이후 정식 승려로서의 삶과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초심 수행자들은 강원과 같은 대중생활을 통해 승가 공동체 생활을 익히게 되며 나아가 출가 목적과 수행관

1) 탁낫한, 「젊은 비구스님들과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말씀」, 『석립』31 (동국대학교 석립회, 1997).

2) T.40 p.6b.

확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에서의 청규는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임과 동시에 앞으로 개개인의 수행을 이끌고 나가는 좌표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 강원 교과목을 통해 본 청규정신

### (1) 初發心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수행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중요한 行持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및 공동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대중의 생활규범까지 다루고 있다. 까닭에 한국불교의 대중생활 규범이나 선원 청규의 근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지침서라 할 만하다.

### (2) 沙彌尼律儀

『사미나율의』는 십계를 설명하는 계율문과 총 24 가지의 위의를 설명하는 위의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위의문은 큰스님 공경하는 법에서부터 법문 듣는 법, 경전 배우는 법, 소임 사는 법, 잠자는 법,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법 등 내용면에서는 다소 소소하고 일상적인 듯하지만 그 근본에는 철저한 공동체 의식이 바탕되어 있다.

### (3) 緇門警訓

『치문경훈』은 警訓과 勉學 등 모두 역대 고승대덕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후배를 위해 설파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鴻山大園禪師警策」에서 청규의 중요성과 승으로의 언행일치와 마음가짐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종색선사의 「龜鏡文」은 소임장으로 화합해서 살기 위한 대중 질서와 마음가짐에 대한 경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八溢聖解脫門」에서는 「禮佛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는 것이요, 持戒는 부처님의 행위를 따라 행하는 것이며, 看經은 부처님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며 … (중략) … 得悟는 부처님의 도를 중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승의 본분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姑蘇景德寺雲法師務學十門」에서도 10 가지 항목으로 학인으로서 꼭 배워야 할 바를 정리해 놓았다.

### (4) 禪家龜鑑

『선가귀감』은 조선중기의 서산 휴정(休靜 : 1520-1604)이 50여 권의 경전과 논서·어록 등을 보면서, 참선하는데 필요한 요긴하고 간절한 말들만을 모아서 후학들을 위해서 주해나 개송을 달고 풀이한 것이다. 선가귀감에서는 “부도, 임금, 스승, 시주의 은혜가 깊고 도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중략) … 결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짐담만 하고 있지 않는가? 앓고 놓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가? 이 육신으로 반드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sup>5)</sup> 참선수행만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강원 교과목을 통해 무소유정신이나, 공동체 의식, 출가의 근본정신, 일용선의 정신 등 청규정신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운문사 강원 규범을 통해 본 청규정신

운문사 강원의 규범을 살펴보면,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여지지만 청규라기보다는 세부사항을 다룬 내규라고 해야 옳을 것이며 타율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보청, 소임 등 내용면에서는 율장에 근거한 생활규범이라기보다는 선원청규의 특징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청은 학인들이 자급자족의 생활 태도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나 물질 만능시대를 사는 출가자로서 흔히 간파해 버리기 쉬운 공양물의 소중함, 시주의 은혜에 대해 자각할 수 있다는 점, 일용에서 공부하는 법을 훈련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소임을 통해 대중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기적 관계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살펴본 종색선사의 귀경문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강원에서의 교과 내용이 생활과 별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하겠다.

또한 강원은 일반대학이나 중앙승가대학과는 교과 목 편성이거나 생활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sup>6)</sup> 강원은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교수방법을 통해 行解를 동시

에 익히는 장이며, 교과목 역시 한문 원전으로 看經을 위주로 하여 사상 주입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해 體化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초기불교시대에 자자가 제정된 근본취지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자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 번의 행사로 의해화, 형식화되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반의 그릇된 점을 보고도 모른 체하며 그것이 '서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한 병어리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정신은 퇴색되지 않았는지, 오늘을 사는 수행자에게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불교시대 승가의 생활이나 수행 정신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학인들의 수행관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하기에 초기 경전과 관련된 교과(계율에 대한 교육이나 윤장정신, 현대적 적용 등)는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현 강원생활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은 학인들의 물질 풍조와 개인주의 경향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무소유 혹은 청빈과 겸소를 운운 … 한다는 것은 요구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의 무계로만 가는 새처럼 가라’는 초기 경전의 말씀처럼 개인별 소유를 줄이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원에서의 實修에 관한 내용인데, 선원청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침법문은 아닐지도 상당법문 등을 통해 신심을 견고히 하고 학인 개개인의 수행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대중에서 공의를 모으는 데 흔히들 “대중의 뜻에 수순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非法임에도 다수의 의견이라 하여 행한다면 청매선사의 ‘집무익종’에서 지적한 대로 대중을 이루어 산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출가 수행자는 무엇이 法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佛典과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바른 안목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운문사 강원을 중심으로 강원 생활과 청규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강원 학인들의 수행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실천정신과 자율적인 덕목으로서의 청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사미 ·

사미니강원은 각기 너무 개별화, 지역화 되어 있어서 강원별로 훌륭한 전통이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강원청규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강원간 교류의 토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 모두가 공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강원생활에서 회복해야 할 청규정신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초기불교 승가공동체의 윤장과 선종의 선원청규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에서 나타난 근본정신은 오늘날 강원생활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강원생활 및 승가의 수행 풍토 개선을 위한 청규정신 회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대강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가수행자는 승가의 유타리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그 유타리는 바로 윤장과 청규라는 것이다. 윤장과 청규는 세세한 조목을 나열한 규범이 아니므로 그 안에 스민 정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행으로는 위의를 갖추고 내면으로는 그 정신을 늘 되새길 수 있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신수대장경 권40, 『사분율행사초』.
- 턱낫한, 「젊은 비구스님들과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말씀」, 『석림』31 (동국대학교 석림회, 1997).
- 平川彰 / 석혜능 옮김, 『원시불교의 연구』, (민족사, 2003).
- 최혜법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10).
- 종진, 「윤장과 청규」, 월암, 『청규와 수행』, 『선원청규 편찬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불학연구소 · 선원수좌회, 2007. 10).
- 명법, 「수행자 배출에서 강원의 실상과 개선점」, 『승가교육』2집 (조계종 교육원, 1998).

5) 원준, 「선가귀감 강설 선수행의 길잡이」(법공양, 2008.2), pp.123-124.

6) 이와 관련해서는 명법, 「수행자 배출에서 강원의 실상과 개선점」, 『승가교육』2(조계종 교육원, 1998)의 논문이 있다.



만발한 봄, 흐뭇한 운문

서주/사집과

## 시를 통한 관조의 세계

소천 박영호 / 한학자



작가미상의 송(宋) 나라 때 작품 〈황학루도(黃鶴樓圖)〉

창 밖에 쏟아지는 조춘(早春)의 햇볕이 나목(裸木)의 가지 끝에 초아(初芽)의 소생(蘇生)을 재촉하는 광무(光舞)를 펼쳐내는 아침이다. 조용히 앉아 면 산 잔설이 녹아내리는 옥 같은 물소리를 명상으로 들으며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온 몸으로 흐르는 차향이 귀촉도[歸蜀道, 소쩍새] 소리가 된다.

차향과 함께 하는 시간은 참으로 귀하다. 시공에 걸림 없는 묘유(妙有)의 세계에서 조선의 다성(茶聖) 의순(意恂) 선사를 만나 선사께서는 법호(法號)를 왜 초의(艸衣)라고 하셨을까? 자문해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초의를 직역하면 풀 옷이다. 풀 옷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지(大地)가, 큰 땅이 입고 있는 옷이다.

법부가 어찌 성자의 뜻을 알랴마는 초의를 문자반야(文字般若)로 풀어보면 누구라도 이 몸은 지수화풍,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일생을 땅 속 깊이 묻어 버리고 한 뜻 오롯이 하여 의순(意恂)이 되어 부처를 이루리라 하신 뜻으로 헤아려 진다.

옛글에 중사신통(重思神通)이란 글이 있다. 깊이 생각하면 신과 통한다는 뜻이다. 깊은 곳을 볼 때는 눈을 감고 보라고 했다. 선사를 깊이 관조해 보면 참으로 도인이시며 다성(茶聖)이시다. 선사의 명저 『동다송(東茶頌)』에 전하는 다시(茶詩)는 불후의 명저(名著)로서 대오(大悟)의 경지를 열어 보이신 계송이다. 이 계송을 살펴보면

翠濤綠香纔入朝 聰明四達無滯壅 神爾靈根托神山 仙風玉骨自另種	푸른 파도 녹색 향기 마음 깊이 스며들고 총명하고 사방에 통달하니 막힘이 없네 더구나 신령한 산에 뿌리를 의탁하니 선풍옥골이 스스로 별다른 종자로다
--	---

옛 시를 감상하는 뜻에서 계송의 내용을 음미하자면 문자반야를 넘어 관조의 반야로써 대 해탈의 세계를 노래로 들려주시려는 뜻이 있다. 글자 획수로 풀어하면, 먼저 푸르다는 뜻을 가진 취(翠)자는 동서사방상하를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자유를 상징한 날개 우(羽)자 밑에 끝마침을 상징한 마침 졸(卒)자를 붙여 취(翠)자가 되었다. 이 뜻을 역으로 풀어보면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 이미 날개마저 접었다는 뜻이다.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 그곳은 번뇌도 없고 생사도 없는 존재의 전후를 초월한 불멸의 세계, 공(空) 마저 넘어 부모미생전 적멸위락(父母未生前 寂滅爲樂)의 세계이다. 큰 파도를 뜻한 도(壽)자는 일진법계(一眞法界) 즉, 하나의 생명으로 표현된 법운지(法雲地)이다. 푸를 녹(綠)자요, 향기 향(香)자는 묘유(妙有)를 상징한 색과 공이요, 향기 향(香)자는 곡식을 뜻한 벼(禾) 밑에 날일(日)자를 붙여 향자가 되었으니 태양이 곡식을 익히는 향기요, 농부가 논밭에서 곡식을 가꾸는 땀의 향이다. 내 가족,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보살행의 향이다. 세상에서 모든 구도자들이 뼈를 깎는 인고로 청정한 계율을 지켜 완성된 인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계의 향(戒香)이요, 적정삼매에서 대천세계로 흘러가는 정의 향(定香)이며 대자유인의 해탈자만이 관조의

반야로 보는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다. 나머지 한자, 한글의 뜻도 그 깊이를 범부의 필설로 다 할 수 있는 해탈도인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찰나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는 철학자의 말도, 당신이 바람이라면 그 바람 속에 스며드는 향이고 싶다고 노래한 인도가 사랑하는 시성 타고르의 노래도, 초의선사의 이 다시(茶詩)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역대 대가들의 확철대오한 경지를 보이신 시대를 초월 한 위대한 시들이 많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성당대(盛唐代)의 시인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시는 이백(李白)이 극찬을 하고도 모자라 후일에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를 지어 최호의 황학루와 함께 걸작의 시로 전해진다.

최호의 황학루 시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한 편이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人口膾炙]되고 있다.

옛날 호북성무창(湖北省武昌)이란 곳에 辛氏性을 가진 불쌍한 과부가 살았는데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자식들과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막다른 길에 주막을 열어 술장사를 하였다. 어느 둘 시 추운 겨울날 행색이 남루한 선비가 찾아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몸에 병도 깊어 이대로 가면 얼어 죽을 것만 같으니 며칠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하도 간곡히 사정을 하기에 자기 처지도 어렵지만 그 선비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고생만 하고 약 한첩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이 생각나서 그리하라고 하고 뒷방을 치워 쉬어가라고 했더니 기나긴 겨울 내내 얼어먹고 해를 넘겨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병도 낫고 잘 쉬었으니 이제 가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꿈 참고 미운 정 고운 정 표 없이 잘했는데 떠날 때 섭섭하게 보낼 수는 없다 싶어 술 한상을 잘 차려내고 가다가 목 마를 때 먹으라고 황글 한 접시를 따로 내었더니 그 굽을 그 자리에서 다 까먹고 남은 껍질로 벽에 다 학을 한 마리 그려 놓고 떠났다. 신씨 부인은 선비가 떠나고 난 뒤에야 벽에 그려진 황학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방에 귀한 손님만 들면 벽에 그린 황학이 춤을 추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천하에 풍류객들이 이 신기한 황학의 춤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어 무창 땅은 온통 신씨 부인 주막촌이 되었고 신씨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거부가 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가 그 선비 덕분 아닌가. 생각할수록 그 선비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범상치 않았고 조용한 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모두가 거룩한 성자처럼 느껴져 그렇게 귀한 분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걸 후회가 막급이라 밤마다 정한수를 떠 놓고 죽기 전에 한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한없이 벌었더니, 바람 좁고 달 밝은 어느 날 밤 벌고 있는 부인 앞에 그 선비가 나타나 부인 이만하면 그때 내가 먹은 밥값은 되겠느냐고 웃으며 물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선비님 것이라 마음대로 하시고 하늘같이 귀하신 분을 함부로 대한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더니 이제는 부인의 모든 업이 끝났으니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살라 이르고는 내 밥값은 다 갚아졌다니 내 학은 내가 타고 가네 하고는 손으로 학이 그려진 벽을 향해 학을 부르니 그 학이 날아와 선비를 태우고 푸른 허공, 중생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최호는 이 고사를 두고 시로 읊었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옮겨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崔顥의 黃鶴樓 詩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春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烟波江上使人愁

옛 사람은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으니  
이 땅에는 텅 빙 황학루만 남아있네  
황학은 한 번 간 후 다시 오지 않는데  
흰 구름만 천 년 긴 세월 유유히 흐르네  
맑은 냇물에는 한양의 나무가 역력하고  
앵무주에는 봄풀만 무성하네  
해는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안개 서린 강 위에 시름만 깊어지네

황학을 타고 떠난 선비는 남아 있는 자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왔는가?

그러고 보니 근래에는 춥고 가난한 선비가 어디 살고 있는지 소식 들어 본지도 꽤 오래다. 이 땅의 춥고 배고픈 선비가 거의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세상은 온통 어렵다고들 한다. 고유기에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마음의 결핍까지 더하여 많이 힘겨워한다. 춥고 배고픈 진짜 선비라도 어서 나누셔야 세상이 편안해질 것 같다. 정빈한 선비가 어서 빨리 오셔서 우리나라 집집의 벽마다 황학을 천 마리쯤 그려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벽마다의 황학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날 우리는 모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불초가 부질없는 속경을 환영(幻影)일 줄 모르고 오랜 객병(客病)에 넋이 잡혀 한부(閑浮)의 객이 되어 지향 없이 헤매다 육조께서 일러주신 불교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인간적으로 청정하다고 하신 말씀을 단경(壇經)에서 대하고 객병은 씻었으나 몇 권 경전에 취해 부질없는 사족을 겪도 없이 늘어놓다 큰 스님께 혼이 나고 그 별로 몇 줄 글을 『雲門』에 실어 부처님과 대중 앞에 참회하라는 명을 받고 반성문처럼 쓴 글이 선사의 큰 뜻을 필부(匹夫)의 알음알이로 획수를 돌아보지 못하고 어지럽게 사족을 늘어놓은 허물을 어찌 30방으로 피할까?

그러나 조춘(早春)의 꽃피고 새 우는 소식에 팔만사천 모공을 열어 피어오르는 망상을 망상으로 관조하는 기쁨에 취하여 획수의 춤사위가 허물을 날겼다.

南無大慈大悲觀世音菩薩

## 삶에서 삶으로

- 복전암 경순 노스님을 뵙고 -

원공 / 사교파



복전암(福田庵)!

수행해 가는 데 있어 복이 있어야 장애 없이 중노릇 한다고 어른스님들은 말씀하신다. 하늘에서는 항상 복이 비 오듯 쏟아진다고 하건만 지금의 우리는 너무도 풍족한 세상에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평생을 수행과 대중 외호를 위해 사셨다는 복전암 노스님을 봄니 조그만 체구에도 당당하시고 여든 다섯이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건강함이 넘치신다.

잔뜩 긴장한 우리를 향해 먼저 말문을 여셨다.

“지금은 정말 중노릇하기 좋은 때야. 나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 혼란스럽던 시절에 출가를 하게 됐어.”

잠시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다. 덩달아 우리도 숙연해졌다. 노스님께서 지내셨을 그 시절의 고통과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출가해서 너무 힘이 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그랬는데 어느 스님이 우리 절에 와서 법문을 하는데 ‘너도 여래다. 모두가 여래이건만 미혹에 가려 보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 여쭈었더니 ‘음 마니 반에 훔’ 십 만 독을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7년을 모든 것 시비하지 않고 분별없이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하늘이 뚫리고 땅이 뚫려 모든 게 환해지는 거야. 근데 또 가슴이 답답해. 주위에 대답해 줄 스승이 없어. 스승이… 마침 고봉 스님께서 동네 어느 절에서 법문을 하신다 해서 만나 뵙고 경계에 대해 여쭈었더니 ‘버려라’ 한 말씀만 하셔. 그래 다 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두와 싸우고 있지. 그런 경계가 도리어 큰 장애인 것을 선지식을 만나고서 알았지. 그러니 정법(正法)의

선생이란 게 그리 귀해.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선지식이여.”

스님은 그때부터 고봉 스님께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굳게 믿었으며, 병이 나서 거동이 불편하실 때도 한결같은 신심과 향심으로 10년을 넘게 지극 정성으로 시봉하셨다고 한다. 스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지금은 많은 것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은가? 스승과 제자, 은사와 상좌. 옛날의 그 아름답던 이야기는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일 뿐, 지금은 그저 계산적인 관계만 남아 있을 뿐이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선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서 선지식을 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문득 나를 전적으로 믿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은사스님께 가슴으로부터 감사함이 밀려온다.

그 힘겨운 시절에 인욕으로 수행을 삶으시고 보시로써 정진을 삼으셨으니 정(定)과 혜(慧)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우리 스님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큰 복 짓는 게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대중 시봉 잘하면 되는 거야.” 하시며 환하게 웃으신다. 대중을 공양하고 시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주면 더 큰 것을 바라거나 작은 일을 하고도 해 주었다는 상(相)을 내는 우리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 사랑도, 이해도, 자비도 모두 낯선 말들인 양 멀찍이 떼어 놓고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인욕을 멀리하고, 손해나는 것이 있으면 불만을 토로하고 조금도 서로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순간의 망상만을 주인 삼아서 사는 우리!

스님은 또 우리에게 경전과 조사어록을 나침반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당부하셨다. 항상 배움과 쓰임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넘치는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어느덧 4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희망! 나는 희망을 느낀다. 아직도 우리 결엔 실천 수행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훌륭한 어른 스님들이 계신다. 또한 우리들에게 견책(譴責)의 말이 아닌 당신들의 삶으로써 수행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노스님들이 계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족함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은 많지만 나는 행복하다. 속박이 아닌 인욕과 지계의 자유 속에서 어른 스님들이 이 해 오셨던 대로 정진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수행의 복발을 일구어 나가길 발원했을 노스님의 따뜻함이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을 적셨다. ●



## 我慢心을 버리고 下心하며 살게나

- 고암 큰스님 -

진형 / 사집과



출가 전 '나를 채우는 일'을 뒤로 하고, 출가 후 '나를 비우는 공부'가 시작되었다. 치문을 보내고, 사집이 되면서 '나(我)'라는 상(相)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인욕으로 청정한 삶을 살다 가신 고암(古庵) 큰스님을 떠올리며 그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도 알게 되었다.

작년 여름방학 때 도봉산에 있는 노스님 절에 가기 위해 더운 날씨에 별개진 얼굴로 등산로를 오르는데,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한 보살님이 “스님도 더운걸네, 얼굴 별건 것 좀 봐라.” 하는 말에 부끄럽고 화가 나서 저만치 기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많은 등산객들 틈에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누가 했을까?’ 하고 사람들의 뒷모습을 살피던 순간 문득 고암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노스님인지 뻔히 알면서도 “영감님, 하나님의 은덕으로 오래오래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며 지나가는 청년의 뒤에서 합장하며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분상(憤相)을 내는 상좌에게는 “그리 화낼 것 없네, 하나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닌가.” 하시고는 아무 일 없는 듯 길을 가셨던 스님! 스님은 이렇듯 모든 일에 화내는 법 없이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던 분이다.

스님은 1899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19세에 해인사 제산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고 용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으며, 1923년 해인사 하안거 결제를 시작으로 여러 선원에서 제산, 혜월, 만공, 용성, 한암 선사 등을 모시고 25안거를 성만하였다. 오직 중생 구제의 원과 구법에의 열정으로 정진하시던 스님은 마흔 살 되던 해에 용성 스님을 모시고 경남 양산의 천성산 매원선원에서 현묘한 진리를 깨달았고 용성스님께 전법계(傳法偈)를 받았다. 1939년 해인사 조실을 시작으로 표훈사, 직지사, 범어사 등의 선원 조실을 역임하면서 각처에 포교 및 보살계를 설하였고, 세 번의 종정을 지낸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였다.

또한 타고난 성품이 겸손하고 자비로워 행자시절부터 남다른 덕행과 선행을 보였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이후 수행하신지가 째 되어서도 선방을 다닐 때마다 대중의 고무신을 닦아 놓기도 하고, 짚신을 삼아 각 방에 걸어 놓기도 하였으며, 용맹정진을 하면서 공양주를 자청하는 등 일부러 궂은 일을 찾아 나섰는데, 이는 항상 마음속에 돌아나는 아만심을 꺾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절대 한곳에 오래 계시거나, 개인 절을 소유하지 않으셨다. 또한 평생 두 벌 이상의 옷은 입지 않았으며, 돈을 모아두는 일도 없었고, 연세가 드셨어도 상좌에게 빨래를 맡기지 않으셨다. 첫 발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거듭 발심하여 스스로를 다잡고 채찍질해야 하겠지만, 세월이 흐를 수록 삼독심(三毒心)을 끊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스님은 항상 여일(如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스님들의 귀감이 되었다.

자비와 인욕으로 대중을 섭수(攝受)한 스님은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도 남달랐다. 스님이 조실로 계시는 곳에는 항상 젊은 수좌들이 줄을 이었는데, 누구나 낙관하지 못했던 시절, 겨우 죽으로 끼니를 연명하던 선원에서 공부하겠다고 찾아오는 수좌들을 다 받을 수 없게 되자 바랑을 메고 마을에 내려가 손수 턱발을 해 와서 수좌들을 공부시킨 일도 있었다. 스님의 이러한 자비로움과 후학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매 순간 나타해진 나의 모습을 다잡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지침(指針)이 된다.

항상 덕으로써 행하고 남다른 자비심으로 중생을 생각하며, 일평생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한 스님은 1988년 10월 25일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세수 90세, 법립 71세로 입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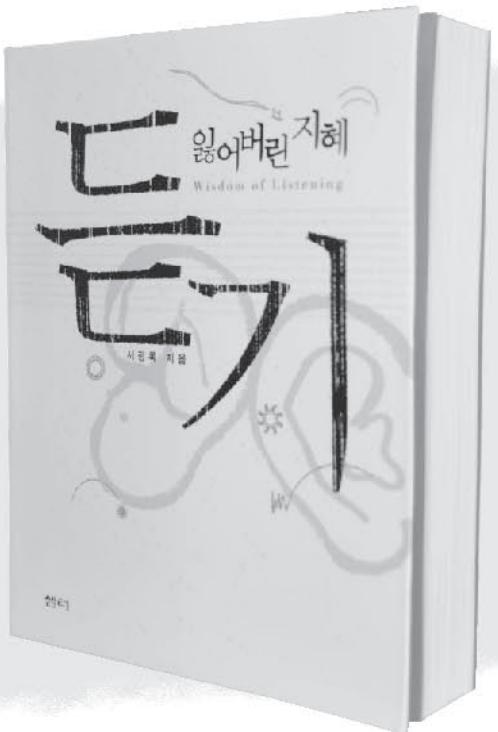
온사 스님께서 행자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처럼만 살아, 그러면 제일 잘 사는 거야!” 무조건 하심하며 부처님 법대로 중노릇 잘하겠다고 의기충천(意氣衝天)해 있던 첫 발심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언짢은 말을 들어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분별심을 내어 들으면 거슬리는 말이 된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듯이 고암 스님처럼 본래 청정한 자성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낸다면 우리에게도 견성의 길은 멀지 않으리라. 스님의 삼독심을 여읜 무욕청정(無慾清淨)의 삶을 거울삼아 한낱 부처님 이름만 과는 수행자가 되지 않기를 서원한다. ☩

## 생명의 소리

-『잃어버린 지혜 듣기』를 읽고 -

아준 / 사교과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나를 행복하게 한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다. 처마 끝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흙바닥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악기 소리와 같아서 나를 편안하게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빗소리의 소중함을 느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에 무관심했던 나는 '잃어버린 지혜 듣기'를 만난 후부터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반스님이 나를 불러도 다른 일에 집중해 있으면 전혀 듣지를 못해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다. 주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생긴 나의 습관이다.

우리가 처음 듣게 되는 것은 어머니 양수 속에

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소리와 목소리 그리고 주변의 소리이다. 이때 듣게 되는 소리에 의하여 아기의 성 품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태교를 중요시 했고, 인디언 어머니들도 배속의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 주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 꽃의 색깔이며 모양과 향기 등을 태아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는 등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태교를 한다. 좋은 태교는 아이의 뇌를 키우게 된다.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태교를 하며, 모든 생물들이 소리의 자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태교를 하듯 서로에게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면 … 생 각만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는 소리가 넓게는 이 우주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좁게는 주변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내어야 할까?

소리에 의하여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도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장애가 되는 파장을 줄이려면 서로에게 따스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가 이후부터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면 문리(文理)가 트인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능엄경」에서는 귀로 듣는 공력이 가장 커서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최고'라고 한다. 이 말에 대한 의문이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해소되었다.

수도사들의 그레고리안 찬트나 사찰의 예불의식, 사물소리 등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 활력소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주력(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라니 등)은 뇌에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최면을 거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우대-피큐리스족 인디언의 태와어에서는 눈(tech)은 '요리하는 것', '찍는 것'이란 뜻이고, 귀(tischu)는 '주는 것'이란 뜻이라고 말한다. 눈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습성이 있다. 그렇다면 귀는 주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소리는 귀가 무심하게 듣는 단계에서는 소음에 불과하지만 마음을 실어 듣게 되면 그 소리를 내는 존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열고 그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귀를 가리켜 마음을 열어 자신의 존재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듣기 문제는 특히 대중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말을 하면, 70% 정도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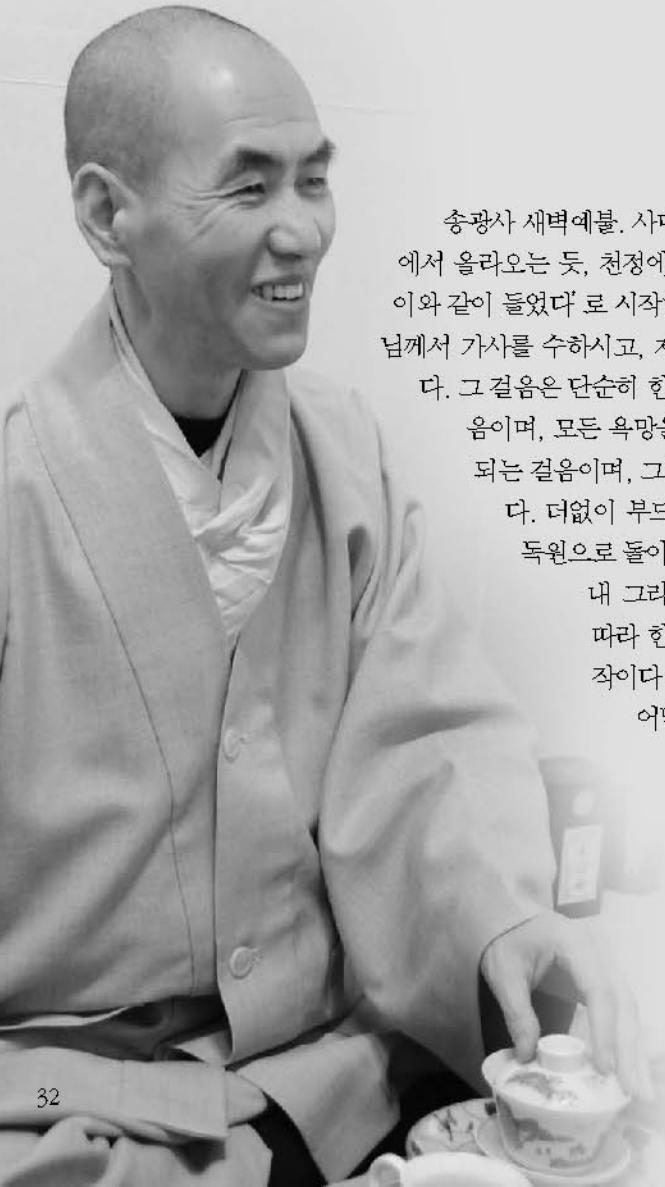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이해한다. 그리고는 다들 자기가 바르게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듣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내는 소리의 일정한 주파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기 목소리로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라는 것이다. 옛 강원 강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왜 독경을 강조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내거나 듣는 소리는 우리의 심장 박동수와 호흡 횟수를 변화시키고, 뇌파를 변화시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듣기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공부나 수행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은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소리에 대한 자각은 나를 돌아보게 해 준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내는 참다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참 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 곧 '생명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공경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세상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일깨우는 길일 것이다.

'그대는 나무가 말하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서로 말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도 그대에게 말을 걸 것이다' ☺



## 계율, 그리운 몸짓

-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을 뵙고 -

선의 / 대교파

송광사 새벽예불. 사미승들의 금강경 독송소리가 저 마루 밑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 천정에서 쏟아지는 듯, 법당 안을 가득 메운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하는 금강경, 부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가사를 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 걸음은 단순히 한 끼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 공덕을 짓게 하는 걸음이며, 모든 욕망을 끊고 일체를 평화롭게 하는 걸음이며, 위안이 되는 걸음이며,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행복에 이르게 하는 걸음이다. 더없이 부드럽고, 모든 것과 함께 하는 몸짓으로 기수급과 독원으로 돌아와 발을 셋고, 명상에 드신다.

내 그리운 몸짓, 끝없는 여정의 첫걸음은 이 발자취를 따라 한없이 순일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우리 마음의 시작이다. 금강경 독송소리가 이어진다.

어떻게 마음을 행복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설법을 하신다.

원래 출가를 하면은… 스님들, 다 스무 살 넘었죠? 그러니까 20세가 되면 누구나 다 구족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부처님 법이거든요. 스님들이 바로 구족제를

받으면 기본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미, 사미니로 4년을 묶어버렸는데 이런 것도 편법이지요. 20세가 넘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구족제를 주고, 주고 난 뒤에 비구·비구니 신분으로 4년을 강당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후 3급 승가고시를 볼 때 승가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나오면 자격을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런 자격은 똑같아지거든요. 부처님 법에 맞게 되죠. 비구·비구니가 되면 5년간 기본적으로 계율을 먼저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 풍속에는 승남보다는 도(道)가 중요하니까 법상에 모시고 예배하고, 절을 하고 그 문을 어른으로 모셔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놀랍게도 부처님 계실 때 교단에서 구족제를 받은 지 2년 된 스님이 아라한과를 얻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라한을 저 아래 자리에 세울 수 없어서 전 대중이 부처님께 여쭸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 하셨나면 '무슨 소리나, 승가의 질서는 승가에 있다. 계율은 배워야 하니까 5년간 확실히 배워야지, 승가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하면 도보다 승가의 질서가 앞선다는 말씀이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족(蛇足)이라 하면서 웃으시는 율원장 스님. 자그마한 체구에 참, 단정하시다. 풀 먹인 무명옷을 이제 막 입은 것처럼 아주 잠깐 분위기가 서걱거리지만 이내 적당히 길들인 풀웃처럼 친숙해진다. 책상과 책꽂이, 다택이 전부인 대여섯 명쯤 앉으면 꽉 차는 방이다.

계율을 왜 공부해야 하나는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수행을 돋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야기 안해도 알잖아요. 두 번째는 승가의 존속을 위해서 계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승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화합이고 또 하나는 청정입니다.

다. 화합은 청정을 전제로 합니다. 청정이 없는 화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포살하죠? 포살할 때 대중이 다 모였습니까, 물고, 청정합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왜 청정합니까 물느냐하면, 화합을 위해서예요. 승가가 세속 대중에게 공양받는 큰 이유가 가장 청정하고 가장 화합된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청정하지도 않고 화합하지도 않으면 공양 받을 당위성이 없어져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속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세속사람들이 스님이 잘못하면 떠듭니다. 부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지 마라, 제정을 합니다, 유팔에 보면. 네 번째 불법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계율이 살아있으면 불법이 살아있고, 부처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오랫동안 불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계율은 허물벗기이다.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기 전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또는 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한 스스로의 허물벗기인 것이다. 하여 대중에게는 화합승으로, 세인에게는 공경의 대상으로, 출가수행자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다.

그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행도 하고 또 주치 소임도 맡고 하다가 늦게 유팔에 와서 유팔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무릎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의 모든 조항을 모아 놓은 것을 바라제 목차라고 하잖아요. 바라제 목차의 별명이 뭐나면 '별해탈경'이거든요. 따로 해탈을 수행하지 않아도 해탈을 이를 수 있다고 해서 '별해탈경'이라고 해요. 계율만 가지고 있어도 해탈에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동안 다른 데에만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세대하고 스님들 세대하고는 커온 방법이 다릅니다. 나는 13살 때 중이 됐거든요. 우리 세대는 종아리를 맞아가며 컸어요. 그게 중노릇하는 법이라고. 그런데 어른스님들이 중노릇하는 법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노릇하는 방법이 달라요, 유팔을 보니까.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

은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노릇은 음… 뭐랄까,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도를 닦아가는 것이고 도가 닦아지면서 그 러면서 인품도 겸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중노릇하고 어떻게 승려의 길을 가라 했는지 이게 율장에 다 나와요.

다겹생대로 내려온 습기를 없애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늘 우리 땅 당당한 것이 수행자다. 출가자의 출발은 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에서 비롯된다. 그 서원이 빛바라지 않고 내 몸속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율장은 2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라제목차고, 또 하나는 건도(健康)라고 해서, 제를 설명하고 또 바라제목차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설명한 것인데, 예를 들면 제를 설명하는 설계(說戒)라든지, 안거라든지, 가사라든지 심지어는 신발이나 모자, 이런 것까지 일상생활을 다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건도예요. 제율은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가(僧伽)라는 공통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으면 건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상가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안하느냐, 물어서 그렇습니다. 건도 만 확실히 익혀도 부처님 일대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교리체계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5년 동안 율(律)을 배우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부처님 당시 수행했던 방법도 다 나와요. 5년간 그것을 익히면서 완전하게, 쉽게 얘기하면 먹물 든다는 거 있잖아요. 장판 때 물는. 중요한 것은 10년을 공부했는데 제율이 익숙하지 못하면 의지사를 두어야 해요. 의지사가 뭐냐면 은사스님 대신 항상 자신의 행위를 물고 의지할 수 있는 스님이에요. 승님이 자기보다 어린 스님을 의지사로 두어도 그 스님한테 상좌처럼 해야 돼요. 좌차(座次) 때문에 예정은 하지 않지만 은사스님한테 하듯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율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마땅하게 마실 게 없다 하시면서, 차 봉지를 들어 보이신다. “이게 설화차라는 건데, 눈 설(雪)자에 꽃 화(花)겠죠? 눈 속에 아직 있는 걸, 그러니까, 눈 속을 뚫고 이제 막 올라온 것을 탁! 쥐어서 차를 만든거죠. 참 잔인하죠? 그죠?” 수줍으신 듯, 웃으신다. 그것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서였을까. 아주 연한 노란빛으로 우려난 찻물을 한 모금 마시자 끝까지 퍼지는 듯하다.

지금 왜 제율이 불교에서 필요한가, 바깥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는 도덕보다는 경제를 선택한 국민이잖아요? 도덕은 우리가 잘 살면 정리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불가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우리 승자가 사회 대중한테 공경받고 공양받는 기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수행 열심히 해서 도를 깨닫고, 이렇게 안 되더라도 도덕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승자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도덕이거든요. 또 이제 안목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도덕과 안목(眼目) 두 가지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안목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어른스님들의 안목 하나로 불교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스님들이 한 거 치고, 요즘 건축학자들이나 앞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뛰어나지 않은 게 없어요. 너무 예술적이에요. 깨달은 스님 치고 시 한 수 안 지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감각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수들에게 다 말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방면에서 눈을 떠라. 부처님이 대기설법하실 때 온갖 종류의 사물들을 다 얘기했거든요. 눈을 그만큼 뜨니까 유풍에 보면 ‘집 어떻게 지어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어느새 율원장 스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힘이 오른다. 혼자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우신 듯, 근기가 하열해진다는 말세에 출가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막행막식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요즘에야 더 말할 나위없

이 계율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승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나면 수행과 설법의 의무 2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의 의무는 개인적인 거예요. 설법은 공양받는 것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법을 청할 때 공양부터 먼저 하고 법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시에 대한 응답이란 거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가 됩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럼 설법도 부처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자기가 닦은 공부나 조사의 말이나 이런 걸 엎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완전히 빼고 조사의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불교는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기본이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몇십년 공부했다면서 설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뭐냐, 절밥만 측낸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자꾸 쇠해가는 거죠. 스님들이 앞으로 할 일이 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일이다. 일체의 의심 없이 온전하게 법을 갖추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불선업의 욕구가, 욕망들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여, 설법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바치는 일일 것이다.

“율은 어떻게 제정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토대가 돼서 힘이 되는지요?”

우선 율이 제정된 까닭은 부처님이 미리 정해놓고 너희들이 이거 지켜라, 이런 게 아니고 스님들

하나하나가 잘못할 때마다 아, 이게 앞으로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요.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혹시 서양식 정식 디너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코스별로 요리가 나오고, 포크하고 나이프가 쭉 늘어서죠. 샐러드 먹는 거, 스테이크 먹는 거 다 다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물론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즐길 수는 없습니다. 밥 먹는 내내 고통이에요. 우리는 포크 3개만 나와도 당황하죠. 그런 걸 배우는 게 그게 식탁 예절이에요. 잘 차려진 요리에 에티켓을 모르면 곤란한 거죠. 제율이란 그 에티켓과 같습니다. 그걸 잘 익힌 사람은 그 식탁의 요리를 마음대로 종횡무진 즐기면서 먹듯이 불법이라는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제율입니다.

지금 같은 제도면 비구니계 받고서도 대중생활을 익히기 위해 다시 강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벌써 8년이 흘러가버립니다. 그리고 계율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유희에 가야 된다면 현실하고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족계에 대한 공부는 사미니 때는 배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차마나니 때가 되면 할 수 있죠. 그 대신 할 수 있는 공부가 뭐냐면 포살이 있습니다. 강원 교육도 새로 편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성철스님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죠. 대만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장관, 차관 자녀들이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전부 출가해 버렸



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관, 치관 아들들이면 엘리트라고 자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선사가 그런 엘리트들을 앉혀놓고 일거설법에 출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해서 고등학생 교실에 가서 불교 너무 좋다고 1시간 동안 얘기해서 설득시켜 불교신자 몇 명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용주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표가 뭐냐면요, 이런 유교의 목표지만 불교에서도 쓰입니다. 실사구시(實事求施), 실학파들이 했던 것이 됩니까? 실제 도움되는 거 하자, 그거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집니다. 가령 우리가 요리사다, 무슨 요리를 지나 할 수 있다, 떠듭니다. 그런데 옆에 배가 고파서 죽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천 가지 요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못 만드는 뺑이지만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도 이렇게 변해야 돼요. 체, 용 배웠죠? 체가 작더라도 용이 다양하면 그게 훌륭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용을 잘 못해요. 우리 한테 주어진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고 그런거죠.

부처님 당시 제정했던 계율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율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까?

2,500년 전에 하지 말라 했던 게 지금도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율의 정신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서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을 안 하는 게 또 다른 체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불교에 대한 가장 기본 스텝이 뭐냐, 체율입니다. 율장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 불교가 서고 반석이 됩니다. 모든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윤사죠. 윤사 위에 경보는 스님, 염불하는 스님 이렇게 나가야지 윤사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포상을 늘 하는 이유가 다 윤사이기 때문에 합니다. 윤사를 따로 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구요. 그리고 부처님 때 우파리 스님을 왜 제

율의 제일이라고 했나면, 윤사는 의미보다는 딴 사람보다 체를 더 엄격하게 가졌다. 다른 사람도 다가쳤는데 그 분이 특별하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윤문사도 윤원이 생겼으니까, 스님들이 한번 윤장을 보면 4년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짜 여기에 자신의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부처님이 어떻게 길을 가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해하면 늘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아요. 스님들도 윤장 공부를 하고 선원을 가든지 다른 소임을 보든지 하면 제 생각에는 엄청난 불교 발전이나 변화가 온다고 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오래된 나무와 아주 오래된 돌담, 나즈막한 올타리 안의 부도탑, 그리고 昆尼院. 윤원과 텃밭, 장작더미, 뒤꼍 마루 아래 다소곳이 숨어있는 아궁이, 아주 작은 방. 윤원은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연과 더불어 거스름이 없다.

대나무 빽빽한 오솔길로 접어든다. 푸른 잎사귀가 하늘을 덮었다. 그 그늘진 길을 조심스럽게 빠져 나오자, 환한, 눈이 부시게 환한 하늘이다. 송광사의 전각들이 한눈에 펼쳐지고 항내 가득하다. 사시불공을 드리는 염불소리가 각 전각마다 간절하다.

바른 말, 바른 몸짓, 바른 생각이 결국은 부처에게 만드는,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만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 근본이다. 그 근본이 청정하면 계율이 살아 움직인다.

오직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당신이 서 있는 곳, 당신이 내딛는 길,  
정녕 청정하십니까? ☺



## 계 향(戒香)

체를 깨끗이 지니는 자가 빛우와 가사를 수하는 것은  
신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의 출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계가 청정한 미주와 미유엔  
지책 등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니  
마치 어두움이 해에 들어오지 않듯이

체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마치 보름달이 허공에서 빛나듯이

체를 지닌 비구는 그의 몸의 향기 조차도  
신들을 기쁘게 하거늘  
체의 향기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리

체의 향기는 모든 향기 가운데 가장 수승하나니  
그것은 결림 없이 모든 방향에 퍼진다

체를 지닌 자를 위해서 한 행위는  
비록 적을 지라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체를 지닌 자는  
공양과 공경의 그릇이 된다

유생의 범뇌들이 체를 지닌 자를 괴롭히지 못하고  
체를 지닌 자는 미래의 고통의 뿌리를 끊어버린다

인간의 행복이든 천신들의 행복이든  
체를 지닌 자가 원한다면  
그것은 일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열반의 경지는 지속히 고요하나니  
체를 지닌 자의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간다  
체는 모든 성취의 뿌리라고  
현자는 갖가지 체의 이익을 알아야하리

## 장뜰이라는 이름의 콩나물국밥집 아주머니

박 남준 / 시인



봄날, 텃밭에 갓 올라온 부추를 베어 슬경슬경 무쳐서 부추비빔밥을 해 먹거나 냉이며 쑥국을 끓이고 쑥부쟁이를 캐어 슬쩍 데쳐서 만든 쑥부쟁이 나물과 어린 머위를 데치지 않고 새콤달콤하게 무쳐 그 쌈초름한 뒷맛을 즐기는 재미가 여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봄나물 반찬을 제외하고 밥보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면이다. 혼자 살면서도 항상 다시물을 끓여 준비를 해두는 까닭이 국수 때문이다. 우리 집에서 국수를 먹고 간 이들이 조금은 과장되게 말을 부풀려서 내가 끓여준 국수를 먹기가 소원이라는 이들도 있다.

그중에 이름을 대면 일만한 모모 스님이 오시면 집에 넉넉하게 준비해 둔 다시물과 국수가 아예 동

이 나기도 한다. 스님들은 왜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는 것일까. 절간에서는 국수를 승소(僧笑)라고도 한다. 국수를 보면 스님이 미소를 짓는다고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다.

우리 집 국수 특별한 것도 없다. 혼자와 노른자로 지단을 부쳐 고명을 얹는 것도 아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텃밭에 부추를 고명처럼 얹거나 겨울에는 가끔 고수나물이나 김 가루, 그리고 묵은 김치를 쫑쫑썰어 내놓는 것이 고작이지만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이들이 맛있게 드시고는 한다.

집을 나서서 가장 자주 가는 도시가 있다면 전주다. 물론 내가 이곳 지리산자락으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어서 지인들이 많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콩나물국밥이나 모밀국수가 먹고 싶어서이다.

전주에 가면 꼭 한 그릇은 먹고 와야 속이 풀리는 것, 이른바 남부시장식 콩나물국밥이다. 전주의 콩나물국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뚝배기를 불에 올려놓고 펄펄 끓여 내오는 것과 식은 밥을 뜨거운 육수에 넣고 국자로 잘방잘방 밥을 풀은 다음에 갖은 양념을 그 위에 얹어 내오는 것,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뜨거운 것을 잘 먹지 못하므로 식은 밥을 말아주는 국밥을 더 좋아한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장뜰>이라는 조금은 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콩나물국밥집이다. 그 집에 드나들던 인연은 근 20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 주인 아주머니는 아직도 내게 콩나물국밥값을 받지 않는다.

어찌어찌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을 알고 혼자사는 가난한 시인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밥값을 끝내 고사하시는 것이다. 꽤 오래동안 밥값을 받지 않는 장뜰에 혼자 갈 수 없었다. 장뜰의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어도 다른 동행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 국밥 값이 있어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

한번은 그 집 콩나물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왜 이렇게 오랫만이나며 반가운 내색을 하신다. 어서 먹으라고 국밥을 말해주신다. 나는 뚝배기 그릇 밑에 돈을 감춰두고 잘 먹었다며 서둘러 인사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삼춘~ 하고 누가 부른다. 뒤돌아보니 그 주인 아주머니 돈을 들고 손짓을 한다. 그러면 안돼야~ 마구 손짓을 하며 걸어오신다.

나는 후다닥 뛰어 도망을 가고 그 아주머니 헐떡거리며 쫓아오고 나는 건널목으로 뛰어들어 큰길

을 건너고 장뜰 아주머니 삼춘 거시기 이리면 안 돼야~ 발을 동동 구르고.

다음에 그 집에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 월 내가 예술가한테 콩나물국밥 한 그릇 못주겠냐고 당장은 고생이 되더라도 거 뭐시냐 예술가는 한우물을 열심히 파다보면 언젠가는 빛 불날이 있을 거라고 꼭 성공하라고 ….

우리집에 드나들던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이제는 성공했다. 내가 그때 삼춘 돈 돌려 줄려고 뛰어가느라 얼마나 숨이 목구멍까지 꽉 찼는지, 다시는 그런 고생시키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다. 성공할 때까지 내게 국밥 값을 안 받겠다고 하신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별씨 십 오년이 넘었다.

또 언젠가 그랬다. 아이고 신문이랑 테래비를 봄계 삼춘 나오더만, 하고 반갑게 맞이하신다. 내가 그랬다. 예, 이제 성공했으니까 국밥 값을 받으셔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단다. 정가도 못가고 자동차도 없는 것 봄계 아직 성공 더 해야 것다고.

지금은 전주 중화산동으로 이사를 간 장뜰 콩나물국밥집에는 또 하나 별미가 있다. 여름철에만 하는 모밀국수다. 시원한 육수에 그 모밀국수 맛이라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여름철에만 한다는 것이다.

전주에 가면 행복하다. 장뜰 콩나물국밥집이 있어서, 전주를 떠올리면 생각난다. 오늘따라 콩나물국밥과 모밀국수 생각이 간절하다. 장뜰 주인 아주머니는 언제나 내게서 국밥 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아주머니 뜻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혹여 전주에 가시는 분들 중화산동 장뜰 콩나물국밥 꼭 한번 맛 보시와요. 꼭이요. 꼭~

---

박남준님은 1957년 전남 법성포 출생. 시집으로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듣는다>, <적막> 등이 있으며 산문집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꽃이 진다 꽂이 편다>, <산방일기> 등이 있다.



짧게만 느껴지는 38일간의 방학이 끝나는 날, 다시 雲門寺 山門 앞이다.

‘虎踞山 雲門寺’라고 적혀 있을 뿐인 돌기둥 두 개가 전부인 운문사의 산문은 一柱門이라고 하기에도, 산문이라고 하기에도 여느 사찰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본디 山門은 절집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을 일컫는 말이다. 그 중 일주문은 한 사찰의 초입에 위치하여 세속과 산중의 경계로써 사찰의 많은 문을 대표한다. 그래서 유독 일주문을 두고 산문이라 칭하기도 한다. 커다랗고 곧은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지붕을 올려 문으로 삼은, 절집에서만 볼 수 있는 일주문은, 그러나 정작 열고 닫을 문짝이 없다. 부처님과 중생을 상징하는 두 개의 기둥은 어긋남 없이 나란히 서 있어서 둘이 아첨을 설하고, 결코 닫히는 일이 없기에 세상 누구나를 품어 안는다.

문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고 있는 절집. 그러나 운문사엔 문이 없다. 아니, 문이 없다고들 말을 한다. 새 학기를 맞아 다시금 운문사로 들어가는 - 이곳에서의 일상을 통해 새로이 스님으로, 수행자로 태어나리라 마음먹은 - 우리들에게는 굽이굽이에 문이 보이는데 말이다.

운문사 정류장에서 내려, 절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운문사를 품은 호거산이 보인다. 편안하게 옆드려 오후의 햇살을 쬐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닮았다는 호거산. 산은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린 듯한 자리에 운문사를 품었다. 연꽃의 씨앗이 영그는 자리라고도 하는 그 자리 덕분일까,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곳이 여기, 운문사다. 나른하고 느긋한 호거산의 첫인상은 일주문과 닮았다. 무섭게 포효하는 호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설 속 어딘가에서와 같이 해학적으로 웃고 있는 호랑이가 두 팔을 활짝 벌려 가난한 여행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생 모두를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처님의 눈길과 같다. 경계선을 긋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집의 문과 달리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그 문에 들어서면, 솔바람이 코 끝에 닿는다.

눈과 귀에 익은 TV와 라디오를 멀리에 두고, 손에 익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지 몇 년째. 익숙했던 그 소음을 여의고 이 고요함을 택해 이제는 여기에 익숙해 질 법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람에 실려 오는

향기며 공간을 채우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은 생애 처음인 듯 경이롭기만 하다. 특히 운문사 입구의 솔밭에서 실려 오는 그 상쾌한 향기는 잠시나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마음의 티끌마저 모두 털어준다. 긴 세월의 비바람과 일제의 수탈이라는 험한 굴곡을 아직도 아물지 않은 흉터로 품었으되, 변함없는 그늘로 쉼터를 만들어 주는 운문사 솔숲은, 金剛力士와 문수·보현보살의 지혜와 행이 함께하는 금강문의 향기를 닮아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지혜가 언제나 환하게 비추는 곳. 그래서 청정도량을 상징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셧어준다는 금강문이 바로 여기 솔숲에 펼쳐져 있다.

그 향기를 따라 굽잇길을 돌아서면 천왕의 세계가 펼쳐진다. 부처님께 발우를 바치고 불국토를 수호하겠노라 서원한 사천왕이 아니다. 침략해 들어온 외세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지켜온 김 장군·손 장군의 비석이 있는 곳. 멀리 보이는 장군바위와 장군평의 전설을 간직한 이곳은 운문사만이 가진 천왕신장님의 터전이다. 마치 도량을 수호함에 게으름이 없음을 지금껏 감용이라도 한 듯, 이 앞에 자갈로 만든 돌탑이 참 많이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쳐 ‘그런 게 있었나?’라고 되묻곤 하는, 또 불이문이 보인다. ‘화랑 세속오계비’가 그것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청년 집단으로 발전한 화랑은 본보기로 삼을만한 가르침을 구했다. 귀산과 추향이라는 두 화랑은 당대의 스승이신 원광국사를 찾았고, 스님은 바로 이곳 운문사에서 불교와 유교의 이념을 아우른 덕목 다섯 가지로 그들을 교화하셨다. 그 기념비인 세속오계비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귀결됨을 설하고 있다. 그러니 나와 너, 지혜와 어리석음이 결국 둘이 아님을 설하는 불이문과 다름없는 공간이다.

그 긴 굽잇길의 막바지, 이제 백운교 다리를 건너며 밤 아래 흘러가는 맑은 물에 마음을 셧고 아름드리 벚나무가 만들어 놓은 화장장엄의 터널을 지나 범종루를 통해 도량으로 들어선다. 길을 걸으며 털어내고 닦아 놓은 마음으로 도량을 돌아보면, 방학하기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언제나 그 자리, 그 모습인 부처님의 도량이다.

禪을 수행하는 출가 수행자들을 일러 ‘雲水衲子’라고 한다. 옷을 기워 입는 청빈한 삶을 선택해 구름처럼 물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모였다 흩어짐에 결림도 없고 기약도 없는 구름 같고 물 같은 200여 수행자들의 타전이기에, 애초에 ‘문’이라는 공간은 ‘雲門’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백지 위에서 검은 점이 더 잘 보이듯,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 산이라는 낯설고도 고요한 곳에서 우리 스스로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마음을 잘 살펴볼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침된 자유와 진실한 모습을 찾기 위해 일단 떠나 보는 것이다.

진리와 법, 그 오롯한 모습이 두루 펼쳐진 이 자연과 함께 피어나는 새봄에 풍령, 몸을 던진다. 언젠가 허공의 구름처럼 완벽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저 문을 당당히 나설 날을 그리면서.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워 보였다. 어릴 적에는 먼 나라의 이름 모를 섬 풍경이 그랬고 잡히지 않던 뜻 별빛이 그랬다. 새스님 생활을 할 때는 운문사 달력 속 대중스님들의 풍경이 또한 그러했다. 달력 속 풍경을 보며 1년이 흘러갔고, 이제 내가 그 풍경 속 운문사에 '치문반' 이란 이름으로 들어온 지 3주가 지났다.

얼마 전 처음으로 '대중 울력'이라는 것을 해 보았다. '발에 거름주기'였는데, 리어카에 호미, 대야, 칼 등 도구를 준비해서 냉이를 먼저 캐고, 거름 포대를 칼로 가르고, 밭고랑을 뛰어다니며 뒷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울력이 끝났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해야 했던 일이 이렇게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듯 빨리 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었다.

대중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어릴 적 했던 '전체 그림 그리기' 같다. 내가 맑은 부분의 그림을 다 그리고 각자 그런 부분을 모았을 때 거대한, 특유의 개성이 살아 있는 그림으로 완성되듯 대중살이란 그렇게 함께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싶다.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이곳에 사는 것이 꿈인지, 예전에 있었던 곳이 꿈인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때문일까? 초발심 때가 자주 생각난다. '왜 출가를 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되짚어 보게 된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길이 쉽지만은 않으리라.

운문사에 처음 올 때 운문댐을 보았다. 지금 '치문반' 이란 이름으로 운문사 대중 속에 합류한 우리는 아직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강물인 것 같다. 어떤 산굽이를 돌아야 할지 모르고, 물살에 서로 아프기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강물인 것이다. 오직 낮게, 낮게 흐르는 것만이 약이라 믿고 가야 할 것 같다.

새벽 목탁소리에 잠을 깼을 때의 청량함과 밤우공양 후 열어 놓은 문틈으로 보이는 푸르스름한 풍경과 새들의 노래 소리가 참 경쾌하다. 상강례를 마치고 가사장 삼을 수하고 간경 가는 반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

강원 4년의 시간은 내게 이 길에 대한 확고함과 절실함을 다시 되새겨 주고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

## 길 위 에 서 만 난 부 처 님

범수 / 대교과

대자유를 꿈꾸며 출가한 우리들은 아직 햇중  
삶에 대한 겸손함과 하심을 실천하며  
불우이웃을 돋기 위해 나선 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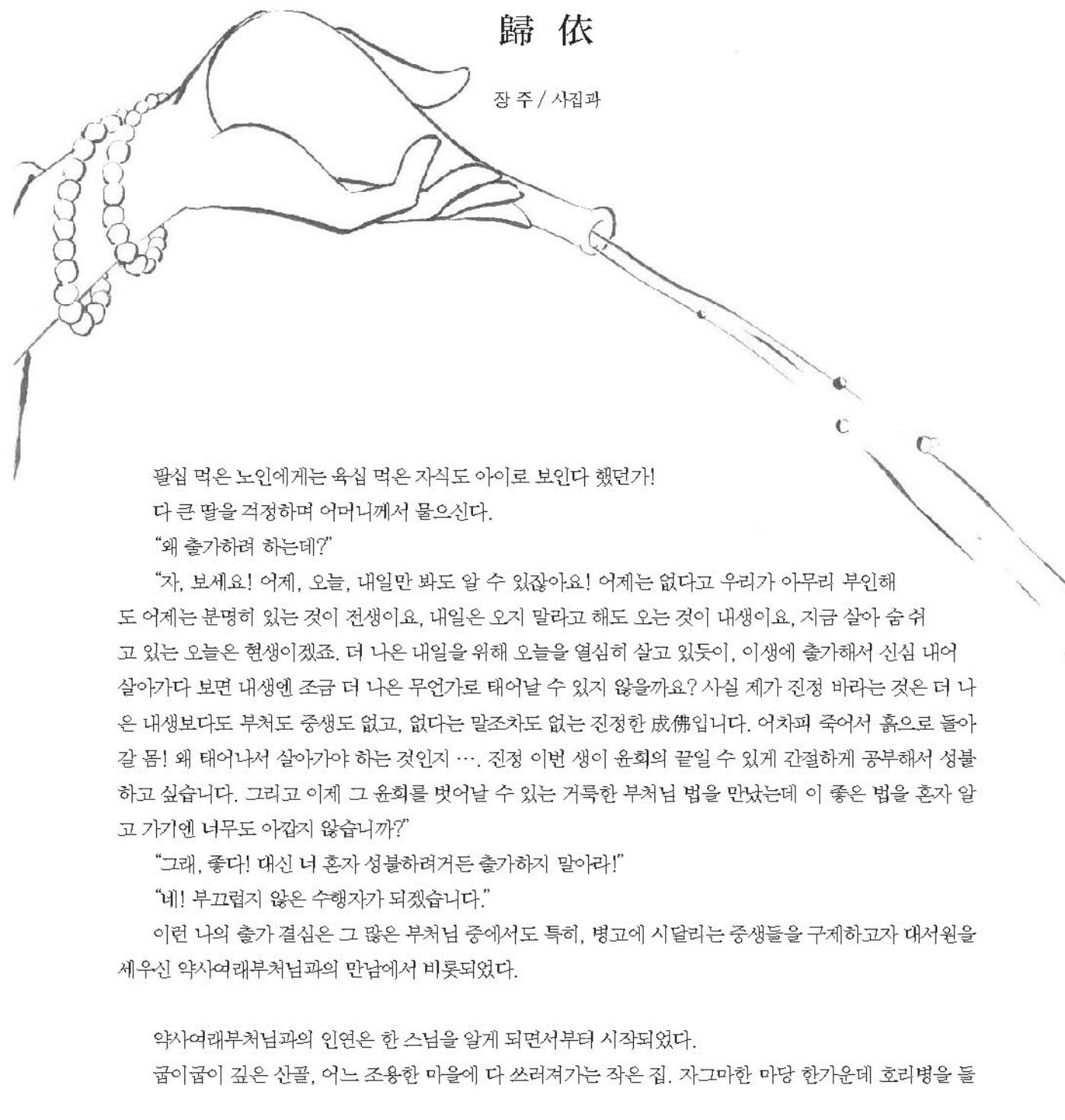
어색함과 설레임은 잠시 가사 장삼 속에 접어두고  
'또로록 또로록 뜡' 시방의 허공을 가르는 목탁소리와  
'석~가모니불'의 수줍은 염불은  
봄 햇살이 되어 마을사람들의 언 가슴을 녹인다



딱딱한 아스팔트를 좌복 삼아 앉으신 노보살님  
쭉, 냉이를 다듬느라 거북이 등처럼 거칠어진 손으로  
구겨진 지폐를 바리때 안에 넣어주시며  
풀만사천의 말없는 법문을 펴신다

비록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도  
하늘 아래 가득 자비를 베푸신 당신들은  
길 위에서 만난 진정한 부처님!





고서 계셨던 부처님의 단아한 모습과 그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 스님의 검소한 생활, 그리고 바라는 바 없이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스님의 자비행은 어렸던 나에게 출가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 그 마음은 절에 가면 의무적으로 절 삼배만 간신히 했던 나에게 백팔 배, 천 배, 삼천 배, 오천 배, 칠천 배… .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어느덧 출가를 하기 위해 부처님께 발원하기에 이르렀다.

“부처님! 제가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회향 후엔 당신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바람의 감응일까?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부처님 꿈을 꾸게 되었다. 오색광명의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향해 내려오시는 꿈이었다. 나는 그 꿈이 내 발원의 답이라 생각을 했고,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고요한 법당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다기를 올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전생과 현생에 지은,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참회하고 또 참회했으며, 이산연선사 발원문을 암송하며 무릎이 땅도록 절을 했다. 그러다가 새벽이 밝아오면 스님의 도량석과 첫송을 들으며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고 또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굳이 그렇게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던 것은 내 기도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진실한 기도이길 바랐기 때문이며, 부처님께 했던 발원과 다짐들이 결코 지켜보는 이들의 기대 속에 힘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 자신을 이겨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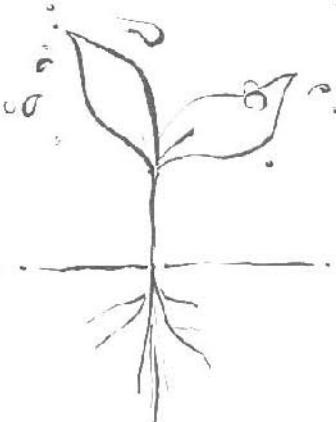
그리고 1여 년 후… . 외로운 나 자신과의 싸움을 회향하며, 드디어 난 ‘삭발염의(削髮染衣)’를 하게 되었다. 이때의 기도는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하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바쁜 나날 속에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살필 겨를도 없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새봄을 맞이한 설레임에 몸살을 앓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 내어 약사여래부처님께 귀의하며, 기도한다. 당신께서 영겁동안 병고와 온갖 고통에서 시달리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고자 제도의 방편을 아끼지 아니하셨듯, 나 또한 그 서원 따라 모든 중생들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

그리고 부처님을 닮은 눈 푸른 납자(衲子)  
가 되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출가하고자 했던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며, 모든 중생 구제하시는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남으리라 다짐해 본다.

다시 한 번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歸依)합니다. ●



## 믿음은 의심 없는 마음

현진 / 사교과

짠 것은 소금의 본성이고, 단 것은 설탕의 본성이다. 그러나 물은 어떠한 맛과 향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물의 본성을 함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고,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는 성질이 도(道)와 같다고 했다. 이렇듯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주변을 정화시킨다.

우리가 도(道)와 같다고 하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수행자라면 신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신심' 이었다.

사미니체를 받고 온사스님 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다. 어느 날 스님께서는 "우리 현진이에게 2%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셨다. 그 질문을 듣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있는데, 스님께서 "신심이야!"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게 신심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심으로 출가한 내 마음을 왜 물려주실까?'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 나는 강원에 입학하여 정신없이 바쁜 치문 첫 철을 보내고, 땀으로 젖은 적심이 마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힘든 고비를 맞이했다. 밖으로 향하는 내 마음속의 많은 분별심을 봐주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다.

누구에게 털어 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강원생활을 하다가 가을철 짧은 휴강이 있어 우리 절로 돌아왔다. 온사스님께서 "그동안 별 일 없었니?" 하고 물어보셨다. 나는 조심스레 내 분별심으로 인한 강원

생활의 고민을 털어 놓았다. 스님께서는 "화초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길러야 한다. 화초에 물을 주듯이 마음에 있는 잡초도 뽑고 필요한 영양제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마음의 영양제?' 처음 듣는 소리다! 이어서 스님께서는 많은 영양제가 난무하지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필요 한 영양제가 바로 '물'이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 마음을 물과 같이 하라는 의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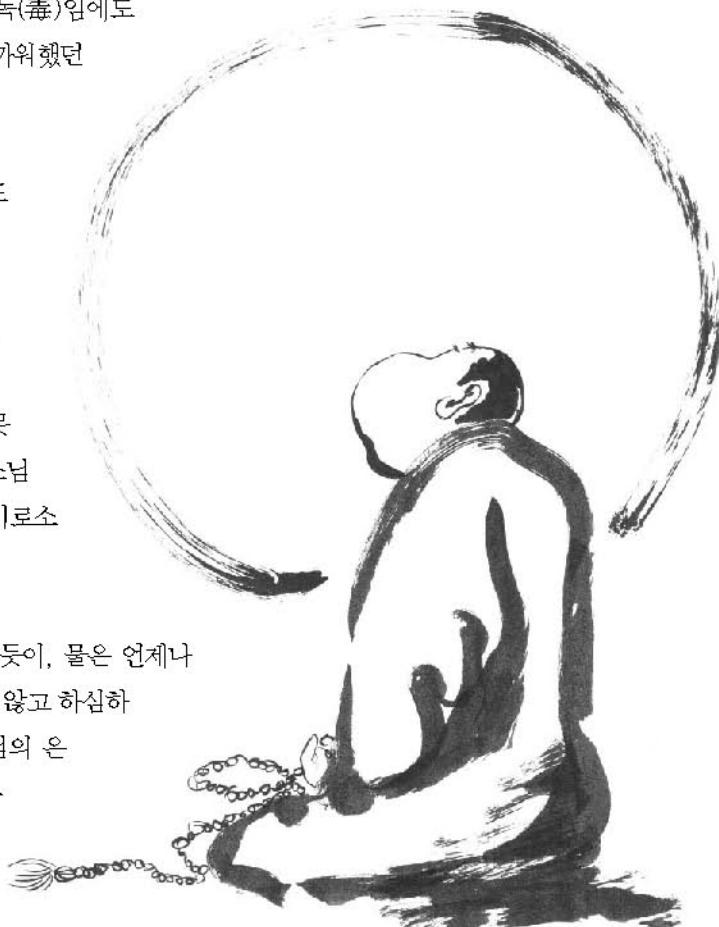
물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 네모 그릇이 오면 자신의 모양을 네모에 맞추고, 세모 그릇이 오면 역시 그것에 자신을 맞춘다.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또한 큰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고 용덩이를 만나면 고이기를 기다릴 줄도 안다. 물론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않고, 투덜대지도 않는다. 그저 슬기롭게 적시적 소(適時適所)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기는 길을 막지 않는 물처럼 그렇게 마음도 길러야 되는 것이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나 힘든 생각만 하느라 주변을 향한 마음은 메말라 있었고, 그 메마른 자리엔 욕심과 의욕만 가득했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수행과 학문에 있어서도 과욕은 마음을 좀먹고 뿌리를 상하게 하는 잡초요, 독(毒)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기 아까워했던 것이다.

기축년 정월, 온사스님께서 정초기도 법문 중에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믿음? 믿음이라…, 스님께서는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이라 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전율이 느껴졌다. 그동안의 망상은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조차 믿지 못했던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전에 스님께서 내게 부족하다고 했던 2%의 의미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거울이 비추는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듯이,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듯이, 나 역시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심하면서 강원생활을 무장무애로 마쳐 온사스님의 온혜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나 자신에게는 더욱 당당한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



## 길에서 묻다

편집부

일교차가 큰 날 아침이면 시야를 가리는 안개 때문에 누구나 한두 번쯤은 고생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리 짙은 안개일지라도 햇빛이 비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안개 속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을 식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나마 걸을 때에는 발밑을 볼 수 있으니 괜찮지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긴장되어서 온갖 등을 켜고서도 불안한 심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안개 깊 공간에 실제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하더라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장애물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1초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은 마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깊 길을 가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듦다. 無明으로 인한 삶의 불명확성은 출가 수행자도 여전히 가진다.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읽을 때는 금방이라도 부처가 될 듯이 신심을 내다가 안개 속에서 돌부리를 보지 못해 좌절 넘어지듯 갑자기 맞닥뜨린 경계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버려 내거나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죽음의 사막 「타클라마칸」을 건너간 수많은 구법승들은 길도 없는 길을 法을 구하는信心 하나로 삶에 대한 모든 위협을 이겨냈건만 우리는 가끔 길을 가는 목적을 잊고 신기루의 황홀함을 쫓다 힘을 빼기가 일쑤이다. 부처님께서는 팔만사천 방편으로 無明에서 벗어나는 길을 곡진하게 일러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할까?

이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연들로 점철된 각자의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아서도 아니고, 세파를 헤치며 알게 모르게 살아온 지식의 양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알뜰히 챙긴 삶의 지혜에서는 결코 잘못을 찾아낼 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운명의 장

난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다. 확실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아마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만 몰두하다보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기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는 자신을 정의내리는 질문으로 여기서의 정의란 언어와 실천의 표준이다. 그러나 언어와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언어 없는 실천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을 사회화하는 데서는 실패했고, 실천 없는 언어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에 어떤 정의를 내리든지 언어와 실천, 또는 삶과 행의 일치 즉 진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특히 출가한 우리에게 진실은 스스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타인이 원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라는 틀에 자신을 얹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절취하여 마케팅 하는 연예인이 아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이다.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있어 이젠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 삭발염의 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단지 길을 갈 뿐이라는 것이다.

시인 프로스트(Robert Frost 1894-1963)는 자신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 두 갈래의 길 중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길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생의 행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읊고 있다. 그러나 프로스트와 달리 우리 출가자에게는 두 갈래의 길만이 목전에 있지만 않는다. 그 길은 수천, 아니 수만으로 열려져 있다. 길이 있어서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곳이 곧 길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확신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발걸음을 내딛었기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고 애쓰는 것이다.

누군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와 '수행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학자는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고, 수행자는 지도를 잘 읽지는 못하나 그 지도를 들고 직접 길을 나서는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행자는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 『임제록』 중에 '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그대로가 참된 것이 된다. 어떤 경계가 다가온다 하여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목은 습기와 무간 지옥에 들어갈 다섯가지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할 것이다..."

이 얼마나 통쾌한 말씀인가, 어떤 행운을 보장하는 예언서보다 속을 시원하게 한다.

안개가 아무리 짙더라도 그 순간 자신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信心만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며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아로새기며 용기를 가지고 진실하게 노력한다면 자신이 선택한 어떤 길에서 든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신중기도



▲학술교류 조인식



▲사찰체험



▲최재목 교수님 특강



▲처진 소나무 막걸리 주기

## 운·문·소·식

- 2월 21일 봄철 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율원생 스님 2분, 사미니과 40명)가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2월 21일 ~ 23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애를 발원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향일에 산불예방 소금 묻기를 하였습니다.
- 2월 24일 운문승가대학과 일본 하나조노대학의 학술교류협정서 조인식이 삼장원에서 있었습니다.
- 2월 27일 치문반 스님들의 사리암 참배가 있었습니다.
- 3월 5일 염불을 시작으로 행자, 서예, 사군자, 꽃꽂이, 일어, 영어, 컴퓨터, 요가, 피아노 등 외연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6일 봄철 첫 自恣가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9일 냉이 캐기, 거름주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3월 10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29회 '구족계 수계산림'에 홍륜 강주스님께서 니종사, 니교수사, 니갈마사로 참석하셨습니다.
- 3월 10일 ~ 12일 미국 조지아대학(지도교수1명, 대학생 28명)에서 사찰체험으로 2박 3일간 운문사를 다녀갔습니다.
- 3월 14일 '웰 다잉'을 주제로 한 오진탁 교수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6일 연례행사인 대교반 스님들의 탁발이 동곡, 경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총 탁발금은 8,051,620원으로 인근지역 학교의 장학금, 급식비 등의 지원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각지의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3월 17일 학인 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8일 ~ 20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17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홍륜 강주스님께서 습의도감과 교수사로 화감 스님은 갈마사로 참석하였고, 사교과 스님 58명이 '식차마나니계'를 수계하였습니다.
- 3월 21일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주제로 최재목 교수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3일 감자심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3월 27일 제3회 청도 '유동제'에 대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8일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 소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3월 30일 대중 스님들이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3일 포살이 청평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4일 '호스피스 교육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능행 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3일 31일간의 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학감스님   | · 범중스님   | · 선광월불자님 | · 이화진불자님 |
| · 배순애불자님 | · 이기태불자님 | · 김천수불자님 |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2-8834(FAX 겸용)

## | 등 불 |



Virudhaka | 장지에 분채 | 130.3cm×162.2cm

범서/사집과

梵王帝釋四天王  
佛法門中誓願堅  
列立招提千萬歲  
自然神月護金仙

범천왕 제석천왕 그리고 사천왕이  
불법문중에서 서원도 굳건해라  
가람 주위 늘어서서 천만 년 수호하니  
자연스런 신통묘용으로 부처님을 응호하네

Virudhaka는 범어로 증장(增長)을 뜻하며 사천왕 중 남방증장천왕을 이른다.

| 그림기법 | 장지 : 동양화에서 채색화를 그릴 때 많이 쓰는 종이. 화선지를 부(배점)한 것으로 수묵의 흡수력, 볶의 흔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다소 겹쳐 그릴 수도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채 : 자연의 색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색깔은 자연에서 채취하여 색깔을 내려면 가루로 된 물감을 아교에 섞어 칠하면 되는데 아교의 농도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108호·2009년 4월 8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암호)/고문·일진·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혜준·편집위원·현산, 쟁호, 진범, 도일, 만성, 덕운, 지호, 아란·사진·유덕  
컴퓨터·선준·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

